

사이코패스 성향과 공감능력 및 공격성의 관계*

이 지 후 이 훈 진[†] 안 도 연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공감능력 결핍은 사이코패스가 나타내는 핵심특성 중 하나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사이코패스의 인지적 공감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 간 불일치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하위요인, 즉 정서적 냉담성, 죄책감 결여 등을 포함하는 요인(요인 1)과 무책임한 생활양식, 행동통제곤란 등의 요인(요인 2)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 두 요인이 인지적 공감능력 및 다양한 유형의 공격성과 서로 다른 관계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과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온라인 실험과제(얼굴표정 정서인식 과제, 정서적 시나리오 과제)로 구성되었다. 설문 및 실험은 총 30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사이코패스 성향, 공감능력, 공격성 수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1과 2는 적절하게 구분되었으며, 요인 1과 요인 2 모두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의 자기보고 측정치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특히 요인 1이 지니는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성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네 가지의 공격성 유형(도구적, 반응적, 관계적, 외현적 공격성) 모두 요인 2보다 요인 1과 더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공감능력과 공격성에서는 요인 1이 요인 2보다 더 많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표본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및 공격성과 사이코패스 성향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구체화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이코패스 성향의 하위요인, 공감능력, 공격성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 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현재는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 중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훈진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E-mail: hjlee83@snu.ac.kr

사이코패스(psychopath)는 공감능력의 결함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성격문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사이코패스 평가도구인 Psychopathy Checklist(PCL)를 개발한 Hare의 정의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란 공감능력 및 죄책감 결여와 같은 정서적 장애와, 충동성 및 행동통제곤란 등의 행동적 장애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개인을 의미한다(Hare, 1980, 1999). 이 같은 정의에 따라 PCL에서도 '냉담함 혹은 공감능력 결여'를 한 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타인에게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반사회적 행동을 일삼는 사이코패스의 공감능력 결함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 공감적 반응을 나타내는데 있어서의 현저한 장애'라고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러나 사이코패스가 공감능력 전반을 결여하고 있다는 관점은 현상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으며, 사이코패스들이 범하는 다양한 반사회적 행동에는 어느 정도의 공감능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좋은 말주변과 피상적인 매력을 이용해서 타인을 조종하고 유혹하며, 상대를 본격적으로 착취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로부터 애정과 신임을 얻기도 한다(Hare, 1999).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감정을 교묘하게 읽어내고 조종하는 이들의 능력은 사기와 같은 지능적 범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전형적으로 외면적인 호의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혹하는 과정을 포함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목표 대상에 대한 예리한 공감적 지식(empathic knowledge)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Malancharuvil, 2012). 즉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 때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범죄자 집단을 대면하는 사법 관련 종사자나 범죄심

리 전문가들은 사회적 기술을 잘 활용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 사이코패스의 전형적 특성 중 하나라고 보며, 최근 들어서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대중적 인식에도 이러한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Crego, & Widiger, 2015; Edens, Clark, Smith, Cox, & Kelley, 2013; Sörman, Edens, Smith, Clark, Kristiansson, & Svensson, 2016).

사이코패스의 공감능력을 둘러싼 이 같은 모순점과 관련하여, 공감의 개념을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이 제안된 바 있다(Domes, Hollerbach, Vohs, Mokros, & Habermeyer, 2013). Blair(2005)도 마찬가지로 이 둘을 구분하면서 사이코패스들이 인지적 측면에서 타인의 정서상태를 부호화하는 능력, 즉 인지적 공감능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한 정서를 대리적으로 '느끼는' 능력인 정서적 공감능력은 손상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위 같은 견해와 일맥상통하게 최근 연구들에서는 공감의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다차원적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Albiero, Matricardi, Speltri, & Toso, 2009). 공감의 두 측면 중 먼저 인지적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생각, 의도, 믿음, 지식, 감정, 소망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신적 상태에 대해서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Frith, 1989; Blair, 2005에서 재인용). 여기서 추론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인지적 공감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만약 추론이 타인의 생각, 믿음 등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것이라면 이는 인지적 차원의 인지적 공감이며, 반대로 정서적 과정에 대한 것이라면 이는 정서적 차원의 인지적 공감이

다. 한편 정서적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상태를 대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Batson, Fultz, & Schoenrade, 1987). 즉 다른 사람이 느끼는 정서를 자기 안에서도 경험하고 느끼는 것으로, 관찰자의 정서적 활성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지적인 수준에서만 타인의 내적 상태를 '추론'하는 것인 인지적 공감과는 구분된다.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과연 두 종류의 공감이 따로 손상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다수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인지적, 정서적 공감은 서로 구분되는 신경학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만이 독자적으로 손상되는 것이 가능하다(Blair, 2005, 2007; Jones, Happé, Gilbert, Burnett, & Viding, 2010; Smith, 2006, 2009). 이렇듯 두 유형의 공감 중 어느 하나만이 선택적으로 손상되거나 활성화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점은, 실제로 특정 정신장애에서의 공감능력 손상이 어느 하나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임상적 관찰(예를 들어, 자폐 아동이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정서적 전염[emotional contagion]은 경험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정서의 종류는 식별할 수 없는 것)과도 일치한다(Jones et al., 2010; Rogers, Dziobek, Hassenstab, Wolf, & Convit, 2007; Rogers, Viding, Blair, Frith, & Happe, 2006; Smith, 2009).

이렇듯 공감의 하위유형을 구분하고, 어느 한 유형만이 선택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이코패스가 공감능력의 결함을 지닌다는 일반적 견해와, 사이코패스가 보이는 일부 반사회적 행동이 온전한 혹은 우수한 공감능력을 요구한다는 현상 간의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정서를 자기 안에서도 경험하는 정서적 공

감능력에서는 현저한 결함을 나타내지만, 정서적 반응과는 무관하게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인지적 공감능력은 온전하게 보유할 수 있다는 가설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이루어진 사이코패스의 공감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관점이 성립되는지를 고찰해볼 수 있다. 먼저 사이코패스가 인지적 공감능력에서는 손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및 이와 상반되는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이후 사이코패스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공감능력의 손상에 대한 연구들을 순서대로 다루고자 한다.

사이코패스의 인지적 공감능력

인지적 공감능력이 온전함을 보여주는 연구들

사이코패스에서 인지적 공감능력의 손상은 나타나지 않으며, 오로지 정서적 공감능력만이 선택적으로 손상되어있다는 주장이 있다(Blair, 2007).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사이코패스가 인지적 공감능력 혹은 마음이론(theory of mind)에 결함을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마음이론 과제를 활용한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사이코패스가 마음이론에 손상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는데(Blair, Sellars, Strickland, Clark, Williams, Smith, & Jones, 1996; Widom, 1976), 이는 사이코패스와 함께 공감능력의 결함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정신장애 중 하나인 자폐증에서 마음이론, 즉 인지적 공감능력의 결함이 나타난다는 것(Baron-Cohen, 1995; Hill & Frith, 2003)과는 상반된다. 자폐증과 사이코패스가 인지적 공감능력 손상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다른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 눈 영역 사진을 보고 복잡한 사회적 정서를 판단하도록 요구

하는 과제(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ask)를 사용한 연구(Richell, Mitchell, Newman, Leonard, Baron-Cohen, & Blair, 2003)에서 사이코패스는 과제 수행에서 결함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자폐증을 지닌 성인집단에서 이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나타냈다는 점(Baron-Cohen, Wheelwright, Hill, Raste, & Plumb, 2001)과는 대조적이다.

이 밖에도, 마음이론 과제를 사용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사이코패스 집단이 이야기를 듣고 타인의 마음상태를 정확하게 추론하는데 있어 정상집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olan & Fullam, 2004; Jones et al., 2010). 한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수감자들이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추론하는 데에는 결함을 보이지만, 인지적 상태(믿음)를 추론하는 데에는 결함을 보이지 않음을 밝히기도 하였다(Shamay-Tsoory, Harari, Aharon-Peretz, & Levkovitz, 2010). 또한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수감자들이 얼굴표정 사진을 보고 정서를 정확히 분류하는데 있어 통제 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분류의 정확성뿐 아니라 특정 정서 분류의 정확성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연구가 있다(Book, Quinsey, & Langford, 2007; Dolan & Fullam, 2004).

더 나아가 사이코패스 집단이 인지적 공감 능력에 있어서 정상집단보다 오히려 더 우수한 정확성을 보여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Hansen, Johnsen, Hart, Waage, & Thayer, 2008). 이와 관련하여, 우수한 인지적 공감능력이 행동상의 적대성, 충동성, 조종경향성 등과 맞물리면 사이코패스에게 진화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적 입장이 제기된 바 있다(Book & Quinsey, 2004). 즉 사회적으로 '비열

하고 악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련의 특성들(기만성, 공격성, 정서적 냉담성 등)이 전체 인구에서 적절하게 낮은 빈도로 나타날 경우에, 이런 특징을 더 많이 지닌 개인은 생존과 재생산에 있어 상대적인 이점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사이코패스 집단은 마음이론의 결함과 상관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임상적 기술에서 '공감능력의 현저한 결함'이 매우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이것이 인지적 공감능력의 손상을 동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인지적 공감능력의 결함을 보여주는 연구들

반대로 사이코패스 집단이 타인의 표정, 목소리에서 나타난 정서를 변별하지 못함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 연구들에 의하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아동은 타인이 표현하는 슬픔을 인식하는데 결함을 보였으며(Blair, Colledge, Murray, & Mitchell, 2001; Stevens, Charman, & Blair, 2001),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아동 집단과 성인 사이코패스 집단 모두에서 겹에 질린 표정을 인식하는데 결함이 나타났다(Blair, Budhani, Colledge, & Scott, 2005; Blair et al., 2001; Blair, Mitchell, Colledge, Leonard, Shine, Murray, & Perrett, 2004; Blair, Mitchell, Richell, Kelly, Leonard, Newman, & Scott, 2002; Stevens et al., 2001).

한편 얼굴표정사진에 나타난 정서를 분류하도록 요구하는 과제에서 사이코패스 집단이 어떤 정서를 인식하는데 결함을 보였는가는 연구마다 차이가 나기도 한다. 앞서의 연구들과 같이 사이코패스의 정서 인식능력 결함이 주로 공포와 슬픔의 정서에 국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혐오, 분노, 행복

의 정서에서만 두드러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Kosson, Suchy, Mayer, & Libby, 2002; Pham & Philippot, 2010). 반대로, 사이코패스들이 정서의 종류와 무관하게 전반적인 정서 인식능력에서 결함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힌 연구결과도 존재한다(Dolan & Fullam, 2006; Hastings, Tangney, & Stuewig, 2008). 유사하게 목소리에 나타난 정서를 인식하는 과제에서 사이코패스 경향을 지닌 개인들이 정서 종류와 무관하게 전반적인 인식능력 결함을 보였다는 연구들이 있다(Bagley, Abramowitz, & Kosson, 2009; Blair et al., 2002; Blair et al., 2005; Stevens et al., 2001). 이 중 목소리의 운율적 특성과 의미론적 특성을 구분한 한 연구(Bagley et al., 2009)에서는, 사이코패스들이 운율적 특성과 의미론적 특성 중 한 가지만이 제시되는 두 종류의 자극 모두에서 정서 분류의 결함을 보인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사이코패스의 정서적 공감능력

사이코패스의 정서적 공감능력을 밝히기 위한 연구방법은 인지적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인지적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가 주로 마음이론 과제 혹은 다양한 정서 관련 자극으로부터 정서를 판별하고 분류하는 과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정서적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는 심리생리학적 측정치(눈 깜빡임, 피부 전도, 심장박동률의 변화 등)나 정서경험에 관여하는 뇌 영역의 활성화를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정서적 공감반응이 대부분 정서를 유발하는 자극에 대한 자동화된 신체생리적 반응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실험설계는 공감능력의 정서적인 요소를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Brook & Kosson,

2013).

생리적 측정치를 통해 사이코패스의 정서적 공감능력을 살펴본 연구 중 대표적인 것은 놀람 반사로서의 눈 깜빡임을 활용한 Patrick, Bradley와 Lang(1993)의 연구이다. 눈 깜빡임은 정서상태를 나타내는 비언어적 지표 중 하나로서, 정서상태의 강도가 커질수록 눈 깜빡임의 폭이 커지게 된다. 연구결과, 통제집단에서는 사진의 정서가와 눈 깜빡임 폭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사이코패스 집단에서는 사진에 담긴 정서가의 강도 차이가 반응폭의 차이로 연결되지 않았다. Patrick의 후속 연구(1994)에서는 통제집단과 사이코패스 집단을 대상으로 공포스러운 상황에 대한 심상을 떠올리도록 하고 그 반응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사이코패스들은 심상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나 심상을 떠올릴 때 경험하는 공포 정서에 대한 자기보고 측정치에서 통제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신체생리적 반응에 있어서 사이코패스들의 변화폭은 통제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코패스들이 특정한 상황에 대응하는 정서 및 그 강도를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그러한 정서를 느끼는 능력에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밖에 피부 전도, 심장박동률, fMRI상 특정 뇌 영역의 활성화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사이코패스 집단은 정서경험과 관련된 심리생리학적 측정치의 변화폭이 통제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lair, 1999; Blair, Jones, Clark, & Smith, 1997; Kiehl, Smith, Hare, Mendrek, Forster, Brink, & Liddle, 2001; Verona, Patrick, Curtin, Bradley, & Lang, 2004).

한편 특정한 정서반응에 동반되는 심리생리학적 변화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외에

도 기분유도(mood induction)를 위해 설계된 실험기법을 통해 개인들의 정서적 공감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사용해진 기분유도 기법 중 하나는 특정 정서가 강하게 일어나는 전형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짧은 시나리오 자극을 제시하여 피험자들이 그 정서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슬픔, 공포, 행복 등의 정서를 유발하기 위해 고안된 시나리오 자극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정서적 시나리오를 읽는 것이 각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정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피험자들의 정서상태에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Keltner, Ellsworth, & Edwards, 1993; Larsen & Ketelaar, 1991; Zelenski & Larsen, 2002). 이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속 인물이 특정한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개인이 글을 읽는 중 경험한 정서의 종류 및 그 강도를 응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서적 공감능력을 측정하였다. 즉 실제 정서를 유발하는 실험과제를 사용함으로써, 정서적 공감과 관련된 일반적인 성격의 진술문(예: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일어난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응답으로만 정서적 공감능력을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의 타당도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사이코패스 성향의 구성요인 및 요인 구분의 필요성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사이코패스가 인지적 공감능력에 결함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는 연구결과 간 불일치가 있으며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사이코패스 집단이

정상집단보다 더 우수한 인지적 공감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반대로 사이코패스가 정서적 공감능력의 결함을 지닌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인지적 공감능력과 관련한 선행연구결과의 불일치는 사이코패스 개념의 다차원적 속성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 사이코패스 진단에서 가장 표준적인 평가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1980년 Robert Hare가 개발하고 1991년 개정된 Psychopathy Checklist-Revised(이하 PCL-R)이다. PCL-R의 문항 구성은 표 1에 제시하였으며, 이 척도에 포함된 총 20개의 항목들은 각각 0점에서 2점의 Likert 형식으로 평가된다. 통상적으로 연구목적에 위해서는 40점 만점에 3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사이코패스라고 간주된다. PCL-R에 대한 요인분석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성향은 둘 이상의 요인들로 구성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인다(Benning, Patrick, Salekin, & Leistico, 2005; Falkenbach, Poythress, Falki, & Manchak, 2007; Poythress, Lilienfeld, Skeem, Douglas, Edens, Epstein, & Patrick, 2010). 특히 정서적·대인관계적 요인과 충동적·반사회적 행동요인으로 구성되는 2요인 구조가 다양한 연구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 바 있으며, 이 두 요인은 각각 ‘요인 1(Factor 1)’, ‘요인 2(Factor 2)’로 불린다. 요인 1에는 정서적 냉담성, 얕은 정동, 죄책감 결여와 같은 특성이 포함되며, 요인 2에는 무책임한 생활양식, 충동성, 행동통제곤란 등의 특성이 포함된다. 요인 2는 주로 외현적인 행동문제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하 DSM)의 최신판인 DSM-5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기준으로 주로 기술하

표 1. Psychopathy Checklist-Revised의 문항구성 (Hare, 1991)

1. 달변 혹은 피상적 매력 (Glibness or superficial charm)	11. 난잡한 성행위 (Promiscuous sexual behavior)
2. 웅대한 자기가치감 (Grandiose sense of self-worth)	12. 아동기의 행동 문제 (Early behavioral problems)
3. 자극추구 혹은 지루함을 쉽게 느낌 (Need for stimulation or proneness to boredom)	13. 현실적인 장기목표의 부재 (Lack of realistic long-term goals)
4. 병적인 거짓말 (Pathological lying)	14. 충동성 (Impulsivity)
5. 속임수 혹은 조종경향성 (Conning or manipulative)	15. 무책임성 (Irresponsibility)
6. 후회나 죄책감의 결여 (Lack of remorse or guilt)	16. 자기 행동에 책임감을 지니지 못함 (Failure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own actions)
7. 얕은 정동 (Shallow affect)	17. 여러 번의 짧은 결혼생활 (Many short-term marital relationships)
8. 냉담함 혹은 공감능력 결여 (Callous or lack of empathy)	18. 청소년기의 비행 (Juvenile delinquency)
9. 남에게 기생하는 생활방식 (Parasitic lifestyle)	19. 가석방 철회 경력 (Revocation of conditional release)
10. 서투른 행동 통제 (Poor behavioral controls)	20.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한 재능 (Criminal versatility)

는 행동적 측면에 가까운 특성들과 관련된다 (APA, 2013). 즉 DSM-5에 따른 반사회성 성격 장애 진단은 사이코패스 성향의 정서적·대인 관계적 특성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같은 맥락에서 대다수의 이론가들은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사이코패스가 서로 구분되는 구성개념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Lilienfeld, 1994; Patrick, Venables, & Drislane, 2013; Venables, Hall, & Patrick, 2014).

한편 범죄자 집단이나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된 PCL-R과 달리, 비수감자 혹은 비임상 집단에 대해 사이코패스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PCL-R의 대안으로서 개발된 자기 보고식 척도들이 있다. 이중 Levenson 자기보

고식 사이코패스 성향 척도(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이하 LSRP; Levenson, Kiehl, & Fitzpatrick, 1995)는 PCL-R에 비해 보다 다양한 성격적 특성이나 소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임상집단에 적합하도록 개발 과정에서는 명시적인 범죄행위와 관련된 PCL-R의 문항들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 척도에서 다루고 있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PCL-R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사이코패스의 개념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있다. Levenson 등(1995)에 따르면, 이 척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Hare(1980)가 만든 PCL의 두 가지 구성요인과 유사한 요인들로 구성되도록 고안되었다.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서 주성분분석을 실

시한 결과, 이러한 개발 의도에 걸맞는 2가지 차원이 확인되었으며 이 두 차원은 각기 다른 하위척도로 명명되었다. 이중 하나는 '일차적 사이코패스 척도(Primary psychopathy scale)'로 죄책감의 결여, 정서적 냉담성 등을 포함하며, 개념적으로 PCL-R의 요인 1에 대응한다. 다른 하나는 충동적인 행동문제를 동반하는 신경 증적 성향을 다루는 '2차적 사이코패스 척도(Secundary psychopathy scale)'로서 이는 PCL-R의 요인 2에 대응한다. 연구자에 따라 이 두 가지 하위척도를 PCL-R에서와 같이 요인 1, 요인 2(Factor 1, Factor 2 혹은 F1, F2)라고 부르기도 하며, 본 연구에서도 명칭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LSRP의 두 구성요인을 요인 1, 요인 2로 각각 명명하였다. LSRP는 대학생 혹은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광범하게 사용되어왔으며, 수감자 혹은 범죄자 집단에 대한 잠재적인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다(Brinkley, Diamond, Magaletta, & Heigel, 2008; Brinkley, Schmitt, Smith, & Newman, 2001; Lilienfeld & Fowler, 2006; Poythress, Edens, & Lilienfeld, 1998; Sandoval, Hancock, Poythress, Edens, & Lilienfeld, 2000).

LSRP 외의 대표적인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스 성향 평가척도로는 사이코패스 성격 검사(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 이하 PPI; Lilienfeld & Andrews, 1996)를 들 수 있다. 총 2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실시하기 간편하고 경제적인 LSRP와는 달리 PPI는 총 187개 문항으로 구성되는 척도로, 사이코패스 성향과 잠재적으로 관련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폭넓게 평가하도록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요인분석 연구결과, LSRP와 마찬가지로 PPI 역시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요인이 개념적으로 PCL-R의 요인 1, 요인 2에 대응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Benning, Patrick, Hicks, Blonigen, & Krueger, 2003), 두 요인은 연구자들의 편의에 따라 PPI-I, PPI-II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총 56개 문항으로 구성되는 PPI의 단축형 척도(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Short Form, 이하 PPI-SF; Lilienfeld, 2004) 역시 원칙도인 PPI와 마찬가지로 2요인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Wilson, Frick, & Clements, 1999).

LSRP와 PPI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함께 살펴본 연구(Poythress et al., 2010)에 따르면, LSRP 및 PPI의 하위척도들은 .7~.8 이상의 양호한 내적 신뢰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척도와 PCL-R 간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았을 때, LSRP와 PPI의 두 하위척도는 각각 PCL-R의 요인 1, 요인 2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더하여 불안, 우울, 충동성 등의 정신병리적 요인 및 다양한 성격특성들을 측정하는 여러 척도들을 함께 실시하였을 때, LSRP과 PPI 모두가 척도들과의 상관에서 PCL-R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척도의 총점 및 요인 1, 2에 해당하는 하위척도 점수 모두에서 이러한 유사성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임상집단 및 비임상집단에 걸쳐 사이코패스 성향 척도들의 신뢰도 및 요인구조를 검증한 연구들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두 하위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지지해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PCL-R의 요인 1과 요인 2가 다양한 측정치들(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사회경제적 지위, 지능, 불안 수준, 생리적 측정치, 물질사용장애와의 공병률 등)과 서로 차별적인 상관패턴을 보인다는 연구(Blair, Mitchell, & Blair, 2005)도

이 두 요인이 각기 구분되는 이질적인 차원을 구성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특히 공감능력의 결함과 관련하여, 요인 1의 점수는 인지적 공감수준과 상관을 나타내지 않거나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요인 2의 점수는 인지적 공감점수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 중 PCL-R을 사용하여 사이코패스 성향을 측정한 Brook과 Kosson(2013)의 연구에서는 수감자 집단을 대상으로 비디오 영상 속 인물이 경험하는 주요 정서를 맞추는 실험과제를 사용하여 인지적 공감능력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공감 정확도 점수는 요인 2 점수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지니는 반면, 요인 1 점수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PPI를 실시한 Del Gaizo와 Falkenbach(2008)의 연구에서는, 요인 1에 해당하는 PPI-I 점수가 얼굴표정에 드러난 공포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과 정적 상관을 가지는 반면, 요인 2에 해당하는 PPI-II 점수는 정서인식 정확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PI의 단축형 척도인 PPI-SF를 사용한 Mullins-Nelson, Salekin과 Leistico(2006)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인지적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실험과제 및 자기보고식 척도를 함께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PPI-SF-I 점수가 높은 개인들은 실험 및 자기보고식 측정치 모두에서 공감능력의 손상을 보이지 않은 반면, PPI-SF-II 점수가 높은 개인들은 두 측정치 모두에서 공감능력의 결함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 즉 정서지능과 사이코패스 성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PCL-R로 측정한 사이코패스 성향 중 요인 2와 개념적으로 중첩되는 하위 특성은

정서지능과 부적 상관을 가지는 반면, 정서적 냉담성과 같이 요인 1에 가까운 특성은 정서지능의 다양한 측면들과 정적 상관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였다(Watts, Salekin, Harrison, Clark, Waldman, Vitacco, & Lilienfeld, 2016). 이밖에도 PCL의 스크리닝 버전(Psychopathy Checklist: Screening Version; Hart, Cox, & Hare, 1995)으로 측정한 두 요인 중 요인 2만이 정서인식 정확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지닌다는 연구들(Dolan & Fullam, 2006; Fullam & Dolan, 2006)이 있다. 요약하자면,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이 지니는 요인점수의 패턴에 따라 공감능력 결함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두 요인 중 요인 2만이 공감능력의 결함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는 Cleckley(1976)가 일찍이 제시 하였던 가설과 같이, 요인 1의 특성이 우세한 사이코패스들은 정상적인 혹은 우수한 인지적 공감능력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지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공감능력뿐 아니라 공격성과 관련해서도 요인 1과 요인 2가 차별적 상관을 보인다는 점이 다양한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공격성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기준, 즉 동기(motive)와 형태(form)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Czar, Dahlen, Bullock, & Nicholson, 2011; Raine, Dodge, Loeber, Gatzke-Kopp, Lynam, Reynolds, Stouthamer-Loeber, & Liu, 2006). 동기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공격성은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 하에 계획적으로 행하는 도구적 공격(instrumental aggression)과 위협이나 도발에 대한 충동적 반응으로서 행해지며 주로 좌절, 분노와 같은 강한 정서를 동반하는 반응적 공격(reactive aggress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이코패스 성향의 각 요인과 공격성 유형 간의 상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의도적, 계획적인 성격의 도구적 공격성이 요인 2보다 요인 1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중 PCL-R 혹은 PCL-R의 청소년용 버전인 PCL-YV(Psychopathy Checklist: Youth Version; Forth, Kosson, & Hare, 2003)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도구적 공격성에 대해서는 요인 1만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지니거나 요인 1이 요인 2에 비해 더 강한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Flight & Forth, 2007; Vitacco, Newmann, Caldwell, Leistico, & Van Rybroek, 2006; Woodworth & Porter, 2002). LSRP를 사용하여 사이코패스 성향을 측정된 연구에서는 반응적 공격성의 경우 요인 1, 요인 2 모두와 정적 상관을 지니는 반면, 도구적 공격성에 대해서는 오로지 요인 1만이 정적 상관을 지닌다는 점이 확인되었다(Reidy, Zeichner, Miller, & Martinez, 2007). 이와 유사하게 PPI를 사용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요인 2에 해당하는 PPI-II가 도구적 공격성, 반응적 공격성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요인 1에 해당하는 PPI-I은 오로지 도구적 공격성과만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Cima & Raine, 2009).

다음으로 형태를 기준으로 공격성을 구분할 경우, 신체나 언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가하게 되는 외현적 공격(overt aggression)과 대인관계를 수단으로 삼아 상대의 명성이나 사회적 위치에 간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관계적 공격(relational aggress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비난이 외현적 공격성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특정인을 사회적 관계에서 배척하거나 그에 대해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 것과 같은 행동은 관계적 공격성에

해당한다. 관계적 공격성은 전형적으로 사회적 조종(social manipulation)을 목적으로 행해지는데(Schmeelk, Sylvers, & Lilienfeld, 2008), 요인 1에 포함되는 특성, 즉 기만성, 조종경향성, 병적 거짓말 등에 비출 때 요인 1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관계적 공격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사이코패스들은 구속이나 수감의 경력 없이 원만한 사회적응을 보이거나 학업적, 직업적으로 평균보다 뛰어난 성취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 같은 부류는 요인 1의 특성을 강하게 지닌 집단일 가능성이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외현적 형태의 반사회적 범죄보다는 간접적 형태의 공격을 선호할 수 있다(Coynes & Thomas, 2008; Gao & Raine, 2010). 반면 요인 2에 포함된 특성, 즉 행동통제의 곤란에 비출 때 요인 2는 높은 외현적 공격성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LSRP를 통해 사이코패스 성향을 측정된 연구에서는 외현적 공격성보다는 관계적 공격성이 요인 1을 더 많이 설명하였으며, 요인 2에 대해서는 관계적 공격성보다 외현적 공격성이 더 많은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Coynes & Thomas, 2008). 그러나 PPI-SF를 사용한 다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이 요인 2에 해당하는 PPI-SF-II에 대해서만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Schmeelk et al., 2008) 이 같은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필요성 및 연구가설

선행연구결과 및 이론적 입장들을 종합하면, 사이코패스의 특성에 대한 일관된 연구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요인 구분이 핵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사이코패스가 인

지적 공감능력에 손상을 보이는가와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들에서 불일치가 나타나는 것 역시 사이코패스 성향 측정치를 요인별 점수로 나누지 않은 채 합산하여 분석을 진행한데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사이코패스 집단이 실제 요인 1과 요인 2의 수준에서 서로 다른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요인을 구분하지 않은 채 집단평균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면 해당 표본에 속한 개인들의 특성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일부 선행연구들에서는 요인 1과 요인 2를 구분하여 공감능력과의 상관을 살펴보는 하였으나, 대부분은 공감능력을 측정하는데 자기보고식 척도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자기보고를 통한 공감능력 측정치에는 사회적 바람직성 요구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정서적 과정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고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Nisbett & Wilson, 1977; Sprangers, Van den Brink, Van Heerden, & Hoogstraten, 1987). 즉 엄격하게 말하면, 공감능력의 자기보고 측정치는 개인의 공감능력 자체가 아니라 공감 능력과 관련한 개인적 지각(perceptio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이코패스 성향의 경우 기존에 개발된 몇몇 자기보고식 척도가 임상가 평정으로 채점되는 PCL-R과 양호한 상관을 가진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으나, 공감능력에 대해서는 자기보고식 척도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실정이다(Lilienfeld, 2004; Mullins et al., 2006). 따라서 개인이 실생활 상호작용에서 발휘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보다 타당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행동적 측정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두 가지 실험과제(얼굴표정 정서인식 과제, 정서적 시나리오 과제)를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인지적·정서적 공감능력을 각각 측정하였다. 비교적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과제를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이 연구들은 주로 실험자극에 함축된 정서상태를 지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인 인지적 공감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Brook & Kosson, 2013; Del Gaizo & Falkenbach, 2008; Igoumenou, Harmer, Yang, Coid, & Rogers, 2017; Mullins-Nelson et al., 2006) 공감능력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 모두를 균형 있게 살펴본 실험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의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가 진행되는 데 가장 큰 제한점은 국내 일반인 표본을 대상으로 2요인 구조가 적절히 타당화된 사이코패스 성향 척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비임상집단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어온 사이코패스 성격 검사(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 Lilienfeld & Andrews, 1996)의 개정판(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Lilienfeld & Widows, 2005)과 Levenson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스 성향 척도가 국내에서 번안되기는 하였지만(박혜영, 2007; 이수정, 공정식, 2007; 이수정, 김재경, 2011), 이들 연구에서도 원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구조를 얻지는 못하였다. 이밖에 성인 범죄자 집단을 대상으로 PCL-R을 실시한 결과 3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높음을 보여준 연구(이수정, 이동길, 위희정, 2015)가 있으나, 이를 반복 검증한 연구

는 없으며 전반적으로 국내 혹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사이코패스 성향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PCL-R은 훈련받은 전문가가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실시하는 평가도구로, 임상적 진단이나 범죄자에 대한 형사법적 절차 및 교정 목적과 관련하여 주로 활용되며 일반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측정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적합하다. 따라서 비임상 장면에서 실시되는 자기보고식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작업은 사이코패스 성향과 관련한 연구 대상의 범주가 범죄자 집단과 같은 특정 부류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구집단에까지 확장하여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가설과 관련된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이코패스 성향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먼저 실시함으로써 두 요인이 타당하게 구분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의 2요인 구조를 확인하고, 자기보고식 척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험과제를 사용하여 공감능력의 인지적·정서적 측면을 모두 측정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지닌다. 연구목적은 요인 1, 요인 2가 공감능력 및 공격성과 차별적인 상관패턴을 지니리라는 가정 하에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공감능력 중에서도 인지적 공감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요인 1의 경우 인지적 공감수준과 뚜렷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거나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요인 2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리라고 예측하였다. 한편 정서적 공감의 경우, 사이코패스 집단에서 정서적 공감반응이 감소되어있음을 일관적으로 밝힌 다

수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두 요인 모두 정서적 공감수준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리라고 보았다.

두 번째 가설은 공격성 유형과 관련된 것으로, 동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한 공격성의 4가지 하위유형과 각 요인이 서로 구분되는 상관을 나타내리라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요인 1은 요인 2와 비교할 때 도구적, 관계적 공격성과 더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의 경우 요인 1보다 요인 2와 더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부수적으로는 공감능력과 공격성 간의 상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공감능력의 결합이 공격성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함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방 법

참가자

서울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 30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중 249명은 심리학 교양과목 수강생 중에서 모집하였으며, 나머지 57명은 대학 내 포털사이트에 연구참가자 모집문건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였다. 모든 설문 및 실험은 각 참가자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응답을 마치는데 약 15~25분이 소요되었다. 참가자의 평균연령은 20.59세(SD=2.25, 범위 17~30)였으며, 남성이 126명, 여성이 180명이었다. 연구참여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IRB No. 1407/002-017).

측정도구

Levenson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스 성향 척도
(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LSRP)

수감자 집단이 아닌 일반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Levenson, Kiehl과 Fitzpatrick(1995)이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수정과 공정식(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6문항으로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의 Likert 형식으로 응답한다. PCL-R의 요인 1과 요인 2를 반영하도록 제작된 두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며, 두 하위척도에 각각 16문항, 10문항이 포함된다. 내적일관성은 전체척도에서 .86, 요인 1에 해당하는 하위척도에서 .82~.88, 요인 2에 해당하는 하위척도에서 .53~.73 범위로 보고되었다(Levenson et al., 1995; McHoskey, Worzel, & Szyarto, 1998; Poythress et al., 2010).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은 전체척도에서 .83, 요인 1의 하위척도에서 .80, 요인 2의 하위척도에서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한 문항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내적일관성은 요인 1의 하위척도(12문항)에서 .80, 요인 2의 하위척도(5문항)에서 .65, 전체척도(17문항)에서 .81이었다.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공감의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을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Davis(1980)가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박성희(199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8문항이며 네 가지 하위척도에 각각 7문항이 포함된다. 이 중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에 해당하는 관점 취

하기(perspective-taking)와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의 두 가지 하위척도만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5점("정말로 동의한다")의 Likert 형식으로 응답하며, 내적일관성은 전체 척도에서 .81, 관점 취하기 하위척도에서 .72, 공감적 관심 하위척도에서 .76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석호, 이영호, 2014).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은 전체 척도에서 .76, 관점 취하기 하위척도에서 .70, 공감적 관심 하위척도에서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선제적 공격성 질문지(Reactive-Proactive Questionnaire: RPQ)

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Raine 등(2006)이 개발한 척도로, 총 23문항이며 선제적 공격성(도구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12문항과 반응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11문항으로 구성된다.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Likert 형식으로 응답하며, 내적일관성은 전체척도에서 .92, 선제적 공격성의 하위척도에서 .92, 반응적 공격성의 하위척도에서 .83으로 확인되었다(오인수, 2010). 본 연구에서는 오인수(201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나, 세 개 문항(4번, 7번, 9번)은 대학생 집단에 적합하도록 부분적으로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한 개 문항(20번)은 원문의 뜻에 가깝도록 문장 앞부분을 다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은 전체척도에서 .89, 선제적 공격성의 하위척도에서 .87, 반응적 공격성의 하위척도에서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및 사회적 행동에 대한 자기보고식 척도(Self-Report of Aggression and Social

Behavior Measure: SRASBM)

Morales와 Crick(1998)이 개발한 것으로 총 56 문항으로 구성되며, 이 중 16문항이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한다.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16 문항은 이성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5문항과 또래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11문항으로 나뉘며, 이 11문항은 다시 선제적인 성격의 관계적 공격성(proactive relational aggression)을 측정하는 5문항과 반응적인 성격의 관계적 공격성(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16문항 중 이성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을 다루는 5 문항을 제외한 11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문의 뜻과 일치하면서도 읽기에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번안하기 위하여, 심리학과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15명의 의견을 취합하여 단어선택 및 문장구성에 반영하였다. 1 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의 Likert 형식으로 응답하며, 내적일관성은 선제적인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척도에서 .69, 반응적인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척도에서 .76으로 보고되었다(Bailey & Ostrov, 2008).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은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전체 문항(11문항)에서 .81, 선제적인 관계적 공격성(5문항)과 반응적인 관계적 공격성(6문항)의 하위척도에서 각각 .79,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 AQ)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것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서수준과 권석만(2002)이 번안한 것에서 신체적 공격행동을 측정하는 9문항과 언어적 공격행동을 측정하는 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Likert 형식으로 응답하며, 내적일관성은 전체척도에서 .86, 신체적 공격성의 하위척도에서 .74, 언어적 공격성의 하위척도에서 .73으로 보고되었다(서수준, 권석만, 2002).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은 전체척도에서 .83, 신체적 공격성의 하위척도에서 .79, 언어적 공격성의 하위척도에서 .77이었다.

얼굴표정 정서인식 과제

사진 속 인물의 얼굴표정에 나타난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는 인지적 공감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과제이다. 공감능력의 경우 단순한 자기 보고식 척도로는 타당한 측정치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Jolliffe & Farrington, 2006)을 고려하여, 실험자극을 통해 개인의 공감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온라인 수행이 가능한 형태로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다. 사진촬영에는 연극동아리 출신의 여자 모델과 일반인 남자 모델이 한 명씩 모집되었으며,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단색 벽면을 배경으로 촬영이 진행되었다. 남녀 모델 각각을 대상으로 5가지 정서(행복, 슬픔, 공포, 고통, 중립)를 나타내는 표정을 3가지 서로 다른 각도(정면, 좌측면, 우측면)에서 촬영하였으며, 사진촬영 시에는 모델에게 특정한 정서를 회상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표정을 짓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사진자극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심리학과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15명의 의견을 취합하여 개별 정서를 가장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얼굴표정 사진들을 최종 선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 모델 당 15장(정서 종류 5 * 촬영각도 3)의 사진이 선택되었으며 총 30장의 사진이 과제에 포함되었다.

온라인 과제는 30장의 사진이 각각 한 번씩 제시되는 30회의 시행으로 이루어진다. 과제 수행 시에는 한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이 1초 동안 제시되며, 사진을 보고 사진 아래에 제시된 질문(“이 사진 속 얼굴표정에 나타난 정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에 응답해야 한다. 질문은 5가지 정서가 포함된 선택지와 함께 제시되며 이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다. 응답에는 시간제한이 없으며, 응답 후 화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본 시행에 앞서 5번의 연습 시행을 수행하게 되며, 연습시행에서는 본 시행의 사진촬영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모델의 사진을 사용하였다. 연습시행에 포함된 5장의 사진과 본 시행에서 나타나는 30장의 사진은 모두 무선회된 순서로 제시되었다.

정서적 시나리오 과제

가상적 인물이 특정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을 묘사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해당 정서를 얼마나 경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제이다. 개인의 정서적 공감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정서적 반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극을 사용함으로써 자기보고식 척도보다 타당한 측정치를 얻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다. 4가지 정서(행복, 슬픔, 공포, 고통) 각각에 대하여 3~7개 문장으로 구성된 5편의 짧은 예비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시나리오 작성 시에는 기분유도를 위하여 시나리오 자극을 사용한 선행연구(Keltner et al., 1993; Larsen & Ketelaar, 1991; Zelenski & Larsen, 2002)를 참고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시나리오 자극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심리학과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15명의 의견을 취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한 정서당 2개의 시나리오

를 선별하여 총 8개의 시나리오를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중 공포 정서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진수는 욕실에서 혼자 샤워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집 현관문이 끼익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수는 잠깐 멈추었지만, 물소리에 잘못 들었겠거니 생각하고 샤워를 계속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욕실 손잡이가 덜컥이는 소리가 들렸다. 바짝 긴장한 진수는 샤워를 멈추고 물을 잠갔다. 욕실 안이 조용해지자 손잡이는 점점 더 세게 덜컥이기 시작했다.

온라인 과제 수행 시에는 8개의 시나리오가 한 화면에 연달아 제시되나, 시나리오가 배치되는 순서는 무선회하였다. 참가자는 각 시나리오를 읽은 후 2가지 질문에 답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시나리오를 읽는 과정에서 느낀 정서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으로 4가지 정서를 포함하는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응답한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서 선택한 정서의 강도를 묻는 것으로, 해당 정서를 얼마나 강하게 느꼈는지를 1점-7점의 Likert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

첫째, Levenson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스 성향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CEFA (Comprehensiv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3.04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에 의한 추정과 oblique-varimax 회전이 활용되었다.

둘째, 요인점수와 주요 측정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분석, 상관차 검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상관차 검증에는 Fisher의 Z 변환을 사용하였다.

결 과

사이코패스 성향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Levenson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스 성향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요인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문항내용과 함께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요인의 고유치(eigenvalue)를 통해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스크리 도표를 확인한 결과 두 번째 요인 이후부터 기울기가 급격히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수를 2개로 지정하였을 때 요인 구조의 절대 적합도 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은 .077로 양호한 적합도에 해당하였다.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두 요인에 중복부하되는 문항을 배제하기 위하여, 요인부하량이 .3 이상이면서 그 절대값이 다른 요인에 대한 부하량의 절대값과 .1 이상의 차이가 나는 문항만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요인 1과 요인 2에 부하되는 문항들이 각각 15개,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인 1에 해당하는 문항 중 3개 문항(22번, 24번, 26번)은 척도 개발자의 타당화 연구 및 그 외 선행연구들에서 요인 2에 속하였던 문항일 뿐 아니라, 안면 타당도를 고려할 때에도 요인 2의 개념에 가까운 내용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이후 해석의 명확성을 위하여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요인 1에 12문항, 요인 2에 5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 문항들로 요인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한 두 요인점수 간 상관은 .372인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사이코패스 하위요인과 공감능력, 공격성의 관계: 설문연구 결과

자기보고식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사이코패스 성향의 요인점수 및 주요 측정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였으며, 각 요인과 모든 측정치들 간 상관계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또한 요인 1 점수에서 성차가 나타난 것을 고려하여,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성별의 효과를 통제하고자 성별을 1단계의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아울러 각 요인의 추가적 설명량을 확인하기 위해, 두 요인의 투입 순서를 바꾸어 두 차례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점수와 공감능력 간의 관계

공감의 자기보고식 척도인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이하 IRI)로 측정된 공감점수와 관련하여, 먼저 인지적 공감의 하위척도 점수는 요인 1($r(306) = -.351, p < .01$), 요인 2($r(306) = -.129, p < .05$) 모두와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차 검증 결과, 요인 1이 요인 2보다 인지적 공감수준과 더 큰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Z = 2.29, p < .05$). 정서적 공감의 하위척도 점수 역시 요인 1($r(306) = -.487, p < .01$), 요인 2($r(306) = -.264, p < .01$) 모두와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차 검증 결과 요인 1이 요인 2보다 정서적 공감점수와 더 큰 부적 상관을 가지는

표 2. Levenson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스 성향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내용	요인부하량	
		1	2
1.	성공이란 적자생존의 결과이다. 나는 패자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64	-.26
2.	나에게 있어 올바른 것이란 내가 손에 당장 쥘 수 있는 것들뿐이다.	.56	.03
3.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정당화된다.	.63	-.07
4.	내 인생의 목표는 최대한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다.	.61	.00
5.	돈 많이 버는 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54	.05
6.	다른 사람이 고상한 생각을 하거나 말거나 나의 주된 관심사는 언제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다.	.53	.21
7.	사기 당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도 싸다.	.55	-.03
8.	내 자신을 돌보는 일이 나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이다.	.33	.04
9.	다른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얘기만 골라서 하면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준다.	.35	.05
10.	내가 이룬 성공이 타인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는 기분이 나쁠 것이다. (-)	.29	-.03
11.	나는 진짜 간악한 악당들이 가끔 존경스러울 때가 있다.	.33	.18
12.	나는 목표달성을 위해 타인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39	-.04
13.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작하기를 좋아한다.	.36	.15
14.	나는 내 말이나 행동이 다른 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 (-)	.29	-.07
15.	심지어 내가 뭔가를 팔아야 한다면 손 치더라도 나는 거짓말을 하진 않을 것이다. (-)	.23	.11
16.	다른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기에, 속임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	.14	.11
17.	나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에 봉착한다.	.08	.31
18.	나는 자주 지루함을 느낀다.	.14	.58
19.	나는 오랫동안 하나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다. (-)	.02	.52
20.	나는 너무 먼 장래의 일은 계획하지 않는다.	-.04	.46
21.	나는 무슨 일이든 시작하자마자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는 편이다.	-.03	.71
22.	대부분의 나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32	.18
23.	나는 무엇이든 시작을 하기 전에, 예상되는 결과들에 대하여 세심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	-.02	.24
24.	나는 자주 사람들과 소리 지르며 싸우곤 한다.	.32	.01
25.	나는 좌절할 때 자주 이성을 잃곤 한다.	.27	.25
26.	사랑이란 허황된 것이다.	.34	.18

각 요인별로 최종 선정된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볼드체로 표시함. 역채점 문항에는 (-) 표시를 붙임.

표 3. 사이코패스 성향 요인점수 및 주요 측정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 (n=126)	여 (n=180)	전체 (N=306)	t
요인 1	24.75 (4.27)	23.46 (4.79)	23.99 (4.62)	2.43*
요인 2	11.57 (2.13)	11.83 (2.24)	11.72 (2.20)	1.01
IRI 공감점수				
IRI 인지적 공감점수	25.26 (3.44)	24.72 (3.65)	24.94 (3.57)	1.32
IRI 정서적 공감점수	24.05 (3.97)	24.37 (3.88)	24.24 (3.91)	0.70
공격성				
도구적 공격성	20.14 (6.55)	16.81 (5.34)	18.18 (6.08)	4.72***
반응적 공격성	29.03 (6.56)	27.59 (6.74)	28.18 (6.69)	1.86
관계적 공격성	22.94 (9.21)	22.76 (9.65)	22.84 (9.46)	0.17
외현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18.29 (5.64)	15.20 (4.24)	16.47 (5.09)	5.21***
언어적 공격성	12.64 (3.43)	10.58 (3.53)	11.43 (3.63)	5.09***

* $p < .05$. *** $p < .001$.

표 4. 요인점수와 주요 측정치 간 상관 (N=306)

	요인 1			요인 2		
	전체 (N=306)	남 (n=126)	여 (n=180)	전체 (N=306)	남 (n=126)	여 (n=180)
IRI 공감점수						
IRI 인지적 공감점수	-.35**	-.21*	-.46**	-.13*	-.10	-.14
IRI 정서적 공감점수	-.49**	-.39**	-.55**	-.26**	-.18*	-.33**
공격성						
도구적 공격성	.46**	.41**	.48**	.28**	.30**	.32**
반응적 공격성	.34**	.21*	.41**	.23**	.18*	.28**
관계적 공격성	.48**	.40**	.53**	.24**	.19*	.28**
외현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34**	.28**	.35**	.18**	.20*	.22**
언어적 공격성	.19**	.05	.23**	-.04	-.02	-.04

IRI =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전체집단에서 개별 측정치와 요인점수 간 상관계수에서 요인에 따라 유의미한 상관차가 있는 경우, 큰 값을 볼드체로 표시함. 또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상관차가 있는 경우 큰 값을 볼드체로 표시함.

* $p < .05$. ** $p < .01$.

것으로 확인되었다($Z = 2.53, p < .01$).

이상의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감점수에 대한 각 요인의 설명량을 확인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IRI 인지적 공감점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표

5), 요인 2는 성별과 요인 1이 투입된 상태에서 인지적 공감점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18, m$). 반면 요인 1은 성별, 요인 2, 요인 1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인지적

표 5. IRI 인지적 공감점수에 대한 성별, 요인 1, 요인 2의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β	t	R^2	ΔR^2	F
IRI 인지적 공감점수	1	(상수)		37.495			
		성별	-.075	01.317	.006	.006	01.735
	2	(상수)		26.387			
		성별	-.126	02.344*	.139	.133	24.427***
		요인 1	-.368	06.845***			
		(상수)		23.556			
3	성별	-.128	02.361*	.139	.000	16.268***	
	요인 1	-.375	06.431***				
	요인 2	.018	00.311				

IRI =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 $p < .05$. *** $p < .001$.

표 6. IRI 정서적 공감점수에 대한 성별, 요인 1, 요인 2의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β	t	R^2	ΔR^2	F
IRI 정서적 공감점수	1	(상수)		31.361			
		성별	.040	00.701	.002	.002	00.492
	2	(상수)		26.594			
		성별	-.028	00.543	.238	.236	47.235***
		요인 1	-.491	09.687***			
		(상수)		24.752			
3	성별	-.017	00.336	.245	.008	32.705***	
	요인 1	-.454	08.308***				
	요인 2	-.094	01.737				

IRI =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 $p < .001$.

공감점수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서($\beta = -.375, p < .001$), 인지적 공감점수의 전체 변량 중 11.8%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IRI의 정서적 공감점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표 6), 요인 2는 성별과 요인 1을 투입한 상태에서 정서적 공감점수에 대한 추가적 설명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94, ns$). 한편 요인 1은 정서적 공감점수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서($\beta = -.454, p < .001$), 성별, 요인 2, 요인 1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정서적 공감점수의 전체 변량 중 17.2%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IRI로 측정한 인지적, 정서적 공감의 하위척도 점수 모두 요인 2보다 요인 1과 더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회귀분석에서도 요인 1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점수와 공격성 간의 관계

먼저, 도구적 공격성 점수는 요인 1($r(306) = .460, p < .01$), 요인 2($r(306) = .280, p < .01$) 모두와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상관계수에 대한 상관차 검증 결과, 요인 1과의 상관이 요인 2와의 상관보다 유의미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Z = 2.58, p < .05$). 이어서 성별, 요인 1, 요인 2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표 7), 성별과 요인 1을 투입한 상태에서 요인 2 역시 도구적 공격성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으며($\beta = .155, p < .01$), 전체 변량 중 2.0%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성별, 요인 2, 요인 1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였을 때 요인 1에 의한 추가 설명량(ΔR^2)은 11.5%로, 요인 1이 설명하는 변량이 모형의 전체 설명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적 공격성 역시 요인 1($r(306) = .340, p < .01$), 요인 2($r(306) = .233, p < .01$) 모두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두 상관계수 간 상

표 7. 도구적 공격성에 대한 성별, 요인 1, 요인 2의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β	t	R^2	ΔR^2	F
도구적 공격성	1	(상수)		20.720			
		성별	-.270	04.890***	.073	.073	23.909***
	2	(상수)		04.349			
		성별	-.211	04.206***	.255	.182	51.953***
		요인 1	.431	08.616***			
	3	(상수)		02.681			
성별		-.228	04.573***	.276	.020	38.335***	
요인 1		.371	06.934***				
		요인 2	.155	02.919**			

** $p < .01$. *** $p < .001$.

표 8. 반응적 공격성에 대한 성별, 요인 1, 요인 2의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β	t	R^2	ΔR^2	F
반응적 공격성	1	(상수)		23.678			
		성별	-.106	01.864	.011	.011	03.475
	2	(상수)		07.522			
		성별	-.061	01.112	.119	.108	20.493***
		요인 1	.332	06.091***			
	3	(상수)		05.807			
		성별	-.075	01.384			
		요인 1	.280	04.783***	.134	.015	15.612***
		요인 2	.133	02.296*			

* $p < .05$. *** $p < .001$.

관차는 나타나지 않았다($Z = 1.44, p = .075$). 성별, 요인 1, 요인 2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표 8), 요인 2 역시 반응적 공격성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으며($\beta = .133, p < .05$), 전체 변량 중 1.5%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성별, 요인 2, 요인 1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요인 1에 의한 추가 설명량은 전체 변량 중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적 공격성도 요인 1($r(306) = .476, p < .01$), 요인 2($r(306) = .240, p < .01$) 모두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상관차 검증 결과 요인 1과의 상관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Z = 3.36, p < .001$).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

표 9.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성별, 요인 1, 요인 2의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β	t	R^2	ΔR^2	F
관계적 공격성	1	(상수)		12.641			
		성별	-.010	00.167	.000	.000	00.028
	2	(상수)		00.855			
		성별	.057	01.125	.230	.230	45.255***
		요인 1	.484	09.512***			
	3	(상수)		01.303			
		성별	.050	00.974	.234	.004	30.714***
		요인 1	.458	08.323***			
		요인 2	.067	01.219			

*** $p < .001$.

과(표 9), 성별과 요인 1을 투입한 상태에서 요인 2에 의한 유의미한 추가 설명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67, ns$). 한편 성별과 요인 2를 먼저 투입하였을 때 요인 1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은 전체 변량 중 17.6%로, 모형에 의한 설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현적 공격성의 경우, 먼저 신체적 형태의 외현적 공격성은 요인 1($r(306) = .335, p < .01$), 요인 2($r(306) = .178, p < .01$) 모두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성별, 요인 2, 요인 1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표 10), 요인 1만이 신체적 공격성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262, p < .001$), 전체 변량 중 5.7%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언어적 공격성은 요인 1($r(306) = .192, p < .01$)과만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요인 2($r(306) = -.043, ns$)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성별, 요인 2, 요인 1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결

과, 요인 1에 의한 추가 설명량은 전체 변량 중 3.2%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96, p < .01$).

요약하면, 도구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에 대해서는 두 요인 모두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요인 1이 요인 2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구적 공격성에서 요인 간 설명량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관계적 공격성과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에 대해서는 요인 1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이코패스 하위요인과 정서인식 및 정서적 공감의 관계: 온라인 실험연구 결과

온라인으로 실시된 두 가지 실험과제(얼굴 표정 정서인식 과제, 정서적 시나리오 과제)를 통해 수집한 정서인식 정확도 및 정서적 공감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또한 사이코패스 성향의 요인점수와 실험 측정치 간의 상관을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0. 신체적 공격성에 대한 성별, 요인 2, 요인 1의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β	t	R^2	ΔR^2	F
신체적 공격성	1	(상수)		22.759	.090	.090	29.963***
		성별	-.300	05.474***			
	2	(상수)		09.646	.128	.038	22.258***
		성별	-.311	05.785***			
		요인 2	.196	03.652***			
	3	(상수)		05.823	.186	.057	22.929***
성별		-.269	05.093***				
요인 2		.096	01.712				
		요인 1	.262	04.614***			

*** $p < .001$.

표 11. 얼굴표정 정서인식 정확도와 시나리오에 대한 정서적 공감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남 (n=126)	여 (n=180)	전체 (N=306)	t
얼굴표정 정서인식 정확도				
행복	5.83 (0.63)	5.91 (0.39)	5.87 (0.51)	1.262
슬픔	5.83 (0.57)	5.82 (0.49)	5.82 (0.52)	0.052
공포	5.85 (0.63)	5.85 (0.44)	5.85 (0.53)	0.013
고통	5.13 (1.27)	5.49 (0.81)	5.34 (1.04)	2.766**
중립	5.73 (0.62)	5.75 (0.64)	5.74 (0.63)	0.269
시나리오에 대한 정서적 공감				
행복	11.15 (2.47)	11.44 (2.16)	11.32 (2.30)	1.102
슬픔	12.18 (2.02)	11.92 (2.22)	12.03 (2.14)	1.068
공포	12.06 (1.89)	12.53 (1.91)	12.34 (1.91)	2.101*
고통	11.75 (2.29)	11.87 (2.00)	11.82 (2.12)	0.488

* $p < .05$. ** $p < .01$.

표 12. 요인점수와 실험 측정치 간 상관 (N=306)

	요인 1			요인 2		
	전체 (N=306)	남 (n=126)	여 (n=180)	전체 (N=306)	남 (n=126)	여 (n=180)
얼굴표정 정서인식 정확도						
행복	-.149**	-.223*	-.140	-.103	-.085	-.140
슬픔	-.097	-.117	-.110	-.164**	-.234**	-.110
공포	-.166**	-.209*	-.032	-.050	-.072	-.032
고통	-.228**	-.242**	-.049	-.101	-.180*	-.049
중립	-.108	-.235**	-.050	-.129*	-.255**	-.050
시나리오에 대한 정서적 공감						
행복	-.147*	-.115	-.160*	-.182**	-.080	-.269**
슬픔	-.234**	-.237**	-.250**	-.193**	-.112	-.238**
공포	-.142*	-.045	-.178*	-.145*	-.093	-.193**
고통	-.111	-.116	-.104	-.174**	-.135	-.208**

* $p < .05$. ** $p < .01$.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상관치가 있는 경우 큰 값을 볼드체로 표시함.

얼굴표정 정서인식 정확도와 두 요인의 관계

각 요인점수 및 얼굴표정 정서인식 정확도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대부분의 상관계수가 .2 미만의 작은 크기로 나타났으나 요인별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낸 정서의 종류는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행복, 공포, 고통 표정에 대한 정서인식 정확도는 요인 1과 부

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요인 2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슬픔, 중립 표정에 대한 정서인식 정확도는 요인 2에 대해서만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요인 1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같은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요인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 및 각 요인점수를 독립변인으

표 13. 행복 표정 정서인식 정확도에 대한 성별, 요인 1, 요인 2의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β	t	R^2	ΔR^2	F
행복표정 정서인식 정확도	1	(상수)		58.895			
		성별	.078	01.366	.006	.006	1.867
	2	(상수)		32.382			
		성별	.059	01.024	.026	.020	3.984*
		요인 1	-.141	02.464*			
	3	(상수)		29.570			
		성별	.066	01.139			
		요인 1	-.117	01.880	.029	.003	3.009*
		요인 2	-.063	01.029			

* $p < .05$.

표 14. 슬픔 표정 정서인식 정확도에 대한 성별, 요인 1, 요인 2의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β	t	R^2	ΔR^2	F
슬픔표정 정서인식 정확도	1	(상수)		57.941			
		성별	-.003	00.052	.000	.000	0.003
	2	(상수)		31.110			
		성별	-.017	00.291	.010	.010	1.494
		요인 1	-.100	01.728			
	3	(상수)		29.244			
		성별	.000	00.007			
		요인 1	-.043	00.686	.028	.019	2.935*
		요인 2	-.148	02.402*			

* $p < .05$.

표 15. 공포 표정 정서인식 정확도에 대한 성별, 요인 2, 요인 1의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β	t	R^2	ΔR^2	F
공포표정 정서인식 정확도	1	(상수)		57.238			
		성별	.001	00.013	.000	.000	0.000
	2	(상수)		32.040			
		성별	.004	00.063	.003	.003	0.385
		요인 2	-.050	00.878			
	3	(상수)		28.683			
		성별	-.024	00.422	.028	.026	2.921*
		요인 2	.016	00.264			
		요인 1	-.175	02.824**			

* $p < .05$. ** $p < .01$.

표 16. 고통 표정 정서인식 정확도에 대한 성별, 요인 2, 요인 1의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β	t	R^2	ΔR^2	F
고통표정 정서인식 정확도	1	(상수)		24.215			
		성별	.169	02.981**	.028	.028	8.886**
	2	(상수)		14.956			
		성별	.175	03.103**	.041	.012	6.415**
		요인 2	-.111	01.965			
	3	(상수)		14.469			
		성별	.144	02.552*	.072	.032	7.837***
		요인 2	-.037	00.611			
		요인 1	-.194	03.207**			

* $p < .05$. ** $p < .01$. *** $p < .001$.

로 투입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3~17). 회귀분석 결과, 슬픔 표정의 경우 요인 2만이 낮은 정서인식 정확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포와 고통 표정에 대해서는 요인 1만이 낮은 정서인식 정확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나머지 두 표

정, 즉 행복과 중립 표정에 대한 정서인식 정확도에 대해서는 두 요인 모두 설명력을 갖지 못하였다.

시나리오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두 요인의 관계

각 요인점수와 시나리오에 대한 정서적 공

표 17. 중립 표정 정서인식 정확도에 대한 성별, 요인 2, 요인 1의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β	t	R^2	ΔR^2	F
중립표정 정서인식 정확도	1	(상수)		46.562			
		성별	.015	00.269	.000	.000	0.072
	2	(상수)		25.437			
		성별	.001	00.009	.012	.011	1.791
		요인 1	-.108	01.873			
		(상수)		23.688			
		성별	.012	00.210	.021	.009	2.165
		요인 1	-.067	01.082			
3	요인 2	-.105	01.701				

감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행복, 슬픔, 공포 시나리오에 대한 정서적 공감점수는 요인 1, 요인 2 모두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고통 시나리오에 대한 정서적 공감점수는 요인 2와만 부정 상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및 각 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표 18~21), 행복, 공포, 고통 시나리오에

대한 정서적 공감점수의 경우 요인 2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슬픔 시나리오에 대한 정서적 공감점수에 대해서는 요인 1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앞서 살펴본 정서인식 정확도(인지적 공감)와 비교할 때 시나리오에 대한 정서적 공감에서 각 요인이 설명력을 가지는 정서

표 18. 정서적 공감점수(행복)에 대한 성별, 요인 1, 요인 2의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β	t	R^2	ΔR^2	F
정서적 공감점수 (행복)	1	(상수)		24.499			
		성별	.063	01.102	.004	.004	1.214
	2	(상수)		14.705			
		성별	.044	00.761	.023	.020	3.643*
		요인 1	-.141	02.460*			
		(상수)		14.461			
		성별	.061	01.065	.044	.021	4.650**
		요인 1	-.081	01.312			
3	요인 2	-.156	02.555*				

* $p < .05$. ** $p < .01$.

표 19. 정서적 공감점수(슬픔)에 대한 성별, 요인 2, 요인 1의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β	t	R^2	ΔR^2	F
정서적 공감점수 (슬픔)	1	(상수)		30.072	.004	.004	1.140
		성별	-.061	01.068			
	2	(상수)		19.561	.040	.036	6.299**
		성별	-.050	00.890			
		요인 2	-.191	03.379**			
		(상수)		18.497			
	3	성별	-.083	01.470	.075	.035	8.112***
		요인 2	-.113	01.882			
		요인 1	-.204	03.363**			

** $p < .01$. *** $p < .001$.

표 20. 정서적 공감점수(공포)에 대한 성별, 요인 1, 요인 2의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β	t	R^2	ΔR^2	F
정서적 공감점수 (공포)	1	(상수)		31.567	.014	.014	4.414*
		성별	.120	02.101*			
	2	(상수)		18.111	.030	.016	4.725*
		성별	.102	01.787			
		요인 1	-.127	02.231*			
		(상수)		17.234			
	3	성별	.116	02.018*	.043	.013	4.498**
		요인 1	-.080	01.307			
		요인 2	-.121	01.988*			

* $p < .05$. ** $p < .01$.

표 21. 정서적 공감점수(고통)에 대한 성별, 요인 1, 요인 2의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β	t	R^2	ΔR^2	F
정서적 공감점수 (고통)	1	(상수)		28.306	.001	.001	0.239
		성별	.028	00.488			
	2	(상수)		16.113	.012	.012	1.908
		성별	.013	00.225			
		요인 1	-.109	01.891			
		(상수)		15.748			
	3	성별	.030	00.530	.034	.021	3.504*
		요인 1	-.048	00.774			
		요인 2	-.158	02.574*			

* $p < .05$.

표 22. 공감능력과 공격성 간 상관 (N=30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IRI 인지적 공감																
2. IRI 정서적 공감	.373**															
3. 정서인식 정확도(행복)	.009	.081														
4. 정서인식 정확도(슬픔)	.001	.004	.413**													
5. 정서인식 정확도(공포)	.100	.111	.444**	.381**												
6. 정서인식 정확도(고통)	.060	.113*	.391**	.289**	.263**											
7. 정서인식 정확도(중립)	.014	-.063	.255**	.219**	.119*	.170**										
8. 정서적 공감(행복)	.137*	.218**	.143*	.086	.040	.101	.085									
9. 정서적 공감(슬픔)	.133*	.294**	.203**	.195**	.157**	.197**	.087	.618**								
10. 정서적 공감(공포)	.086	.175**	.238**	.195**	.112	.167**	.066	.608**	.689**							
11. 정서적 공감(고통)	.124*	.208**	.155**	.190**	.151**	.184**	.074	.632**	.640**	.670**						
12. 도구적 공격성	-.293**	-.188**	-.121*	-.221**	-.162**	-.189**	-.207**	-.167**	-.224**	-.135*	-.168**					
13. 반응적 공격성	-.301**	-.069	-.018	-.078	-.022	-.100	-.118*	-.172**	-.110	-.059	-.080	.559**				
14. 관계적 공격성	-.395**	-.277**	-.066	-.207**	-.086	-.127*	-.180**	-.121*	-.178**	-.101	-.088	.518**	.477**			
15. 신체적 공격성	-.240**	-.164**	-.058	-.144*	-.027	-.226**	-.175**	-.150**	-.093	-.113*	-.129*	.520**	.551**	.417**		
16. 언어적 공격성	-.196**	-.105	-.050	-.119*	-.082	-.190**	-.128*	-.066	-.033	-.008	.003	.257**	.322**	.383**	.432**	

* $p < .05$. ** $p < .01$.

는 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얼굴표정 정서인식 과제에서는 요인 2가 슬픔, 요인 1이 공포, 고통 표정에 대한 낮은 정서인식 정확도를 설명하였으나, 정서적 시나리오 과제에서는 요인 2가 공포, 고통, 행복, 요인 1이 슬픔에 대한 낮은 정서적 공감점수를 설명하였다.

공감능력과 공격성의 관계

공감능력, 공격성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 두 변인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2). 분석 결과, IRI 공감점수를 비롯하여 공감능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측정치들과 공격성 점수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공격성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5가지 유형의 공격성 중 도구적 공격성에서 공감 측정치와의 부적 상관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관계적, 신체적 공격성도 대부분의 공감 측정치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논 의

본 연구는 사이코패스의 인지적 공감능력을 둘러싼 선행연구들 간의 불일치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하위요인의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두 요인이 인지적 공감수준과 서로 다른 상관을 나타내는지 검증함으로써 사이코패스에서 나타나는 공감능력 손상의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에 있었다. 또한 공감능력뿐만 아니라 공격성에 대해서도 두 요인이 차별적인 상관패턴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

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다섯 가지 유형의 공격성을 연구가설에 포함시켜 함께 살펴보았다. 즉 사이코패스를 구성하는 두 하위요인이 공감능력 및 공격성과의 상관에서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우선, 사이코패스 성향 척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요인 1과 요인 2가 적절히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 즉 공감능력에 대한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먼저 인지적 공감과 관련하여, 연구가설에서는 요인 1은 인지적 공감능력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거나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요인 2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리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 인지적 공감에 대한 자기보고 측정치(IRI의 인지적 공감점수)는 두 요인 모두와 부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인 1이 요인 2보다 인지적 공감점수와 더 큰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회귀분석에서는 요인 1만이 인지적 공감수준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인 1이 정상 혹은 우수한 수준의 인지적 공감과, 요인 2가 인지적 공감의 손상과 관련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정반대되는 결과로, 요인 2가 아닌 요인 1이 인지적 공감의 결함을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서적 공감능력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인 1의 설명량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IRI 정서적 공감의 하위척도 점수와 요인 1, 요인 2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남으로써 정서적 공감능력이 두 요인 모두와 부적 상관을 지니리라는 가설은 지지되었으나, 상관차 검증 결과 요인 1과의 부적 상관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요인을 모두 투입한 회귀분석에서는 요인 1만이 정서적 공감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 모두에서 공감 결함을 설명하는데 요인 1이 핵심적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실험연구 결과와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얼굴표정 정서인식 과제와 정서적 시나리오 과제에 대한 분석결과, 정서인식 정확도 및 정서적 공감수준의 측정치와 요인점수 간의 상관계수가 대부분 .2 미만의 작은 크기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두 과제의 실험자극에서 나타나는 정서의 종류가 너무 명확하여 개인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낮은 변산으로 인해 해석의 폭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얼굴표정 정서인식 과제와 정서적 시나리오 과제에서 각 요인이 설명력을 가지는 정서가 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얼굴표정 정서인식 과제에서는 요인 2가 슬픔, 요인 1이 공포, 고통 표정에 대한 낮은 정서인식 정확도를 설명하였으나, 정서적 시나리오 과제에서는 요인 2가 공포, 고통, 행복에 대한 낮은 정서적 공감점수를, 요인 1이 슬픔에 대한 낮은 정서적 공감점수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인지적 공감(정서인식 정확도)과 정서적 공감에서 정서 종류별로 설명력을 갖는 요인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서로 독립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며 둘 중 어느 하나만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불일치는 논리적 모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속연구를 위한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제공한다. 즉 특정 정서에 대한 공감능

력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 인지적, 정서적 공감에서 달라질 수 있는지를 추후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인지적 공감능력과 관련해서는 각 요인 점수와 공감능력 간 상관이 정서 종류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몇몇 선행연구(Ali & Chamorro-Premuzic, 2010; Del Gaizo & Falkenbach, 2008)가 있으나, 정서적 공감능력의 경우 이처럼 정서 종류별로 각 요인과의 상관이 달리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하여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 간에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반대양상이 재확인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격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공감능력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요인 1이 요인 2보다 중요한 설명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에서는 도구적, 관계적 공격성은 요인 1과 더 큰 정적 상관을, 이 두 공격성의 개념과 각각 대비되는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은 요인 2와 더 큰 정적 상관을 보이리라고 예측하였으나, 연구결과 모든 유형의 공격성에서 요인 1이 요인 2보다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도구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두 상관계수 간 상관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오로지 요인 1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격성에 대한 가설은 두 유형의 공격성에서 부분적으로만 지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이 요인 2와 더 큰 정적 상관을 나타내리라는 예측은 지지되지 못했으나, 요인 1과 요인 2 간의 설명량 편차가 도구적, 관계적 공격성에서 두드러졌다는 것은 요인 1이 두 유형의 공격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리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요약하면, 공감능력에서와 같이 공격성을 설명하는데도 요인 1이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이 같은 요인 1의 역할은 도구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서 한층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요인점수와 주요 측정치 간 관계뿐만 아니라 공감능력과 공격성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도 공감능력과 공격성 간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사이코패스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공감능력이 사이코패스 성향과 관련한 중요 변인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공감능력의 보유 여부나 그 수준이 공격성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타인의 정서, 특히 공포나 고통과 같은 부정 정서에 대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구결과 나타난 공감능력과 공격성 간 상관은 이러한 가정을 지지해준다. 모든 유형의 공격성이 대부분의 공감 관련 측정치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특히 도구적 공격성의 경우 모든 종류의 공감 측정치(공감의 자기보고 측정치, 얼굴표정 정서인식 정확도, 시나리오에 대한 정서적 공감점수)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반응적 공격성은 공감 측정치와 전반적으로 약한 크기의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유의미한 부적 상관도 훨씬 더 적은 수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의 결핍이 외부적 위협이나 도발 등에 대한 반응으로서 행해지는 반응적 공격성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하는 도구적 공격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낮은 공감능력은 의도적, 목적적인 공격성과 더 강하게 관련되어있으며, 이러한 성격의 공격성과 비교할 때 외부자극에 의해 촉발되어 보다 충동

적이고 감정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공격성은 공감능력 자체의 결핍과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다는 것이다. 이는 도구적 공격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비해 얕은 정동, 죄책감 결여 등의 특성을 포함하는 요인 1과 더 강한 상관을 가진다는 상관분석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감능력 및 공격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연구가설에서 예측한 바와는 달리 모든 유형의 공감능력과 공격성에서 요인 1이 핵심적인 설명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대인관계적 측면과 관련되는 요인 1의 특성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의 결핍, 높은 공격성과 같은 사이코패스의 전형적 특성들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입각하여,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으로 행동적인 측면을 주로 기술하고 있는 DSM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라는 진단이 DSM-III(APA, 1980)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그 진단적 개념은 본래 사이코패스 성향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이었으나, 진단의 신뢰도 문제를 고려하여 개인의 내적인 성격특성보다는 관찰 가능한 외현적 행동특성들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단기준을 구성하게 되었으며(Hare, Hart, & Harpur, 1991), 이러한 진단방식은 DSM의 최신 개정판인 DSM-5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행동특성들로 이루어진 진단기준으로는 단순한 범죄자 집단과 구분되는 사이코패스의 특징적인 속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즉 범법행위, 충동적·비계획적 행동, 신체적 폭력 등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적 양상을 기준으로 진단을 내릴 경우, 주로 사회규범에 반하는 행동문제를 지닌 개인들만이 진단기준을 충족하게 되고 정서적

냉담성이나 공감능력 결핍 등 내현적 속성을 지닌 개인들은 진단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실제로 범죄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최근 연구에서는 DSM-5에 따라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진단된 개인들 중 오직 5.5%만이 높은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Ogloff, Campbell, & Shepherd, 2016). 뿐만 아니라 행동적 진단기준에 따를 경우, 범죄자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 중 대다수가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유병률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진단의 변별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Hart & Hare, 1997; Ogloff, 2006; Widiger, Livesley, & Clark, 2009).

이와 관련하여, DSM-5의 성격장애 진단체계로서 차원적 모델을 채택하자는 대안적 관점이 과거 개정작업 중 활발하게 논의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Widiger, Sirovatka, Regier, & Simonsen, 2007). 개정과정에서 새롭게 주목 받은 평가도구 및 진단모델 등을 서술하고 있는 DSM-5 3편에서는 기존 DSM에서 채택하였던 범주적 모델의 대안으로서 성격장애의 차원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으로 행동적 특성 외에도 자기중심성, 공감능력의 결여, 친밀한 관계형성의 어려움, 냉담성, 조종경향성 등 요인 1이 포함하는 정서적·대인관계적 특성들을 비중 있게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여러 연구들은 다양한 성격차원을 포함하는 이러한 진단방식이 사이코패스 성향의 개념을 보다 밀접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과도하게 높은 공병률, 진단의 시간적 비일관성 등을 비롯하여 기존의 범주적 진단체계가 지닌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Anderson, Sellbom, Wygant, Salekin, & Krueger, 2014;

Few, Lynam, Maples, MacKillop, & Miller, 2015; Strickland, Drislane, Lucy, Krueger, & Patrick, 2013). 따라서 추후 DSM-5에 대한 개정작업에서는 차원적 모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내현적인 성격적 특성들을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로는 먼저, 연구결과가 일반인 표본을 대상으로 도출되었다는 점들을 수 있다. 즉, 일반인 집단에서 나타난 변인간 관련성이 실제 사이코패스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범주적인가 차원적인가, 나아가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에서 차원적 모델이 이론적 타당성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도 직결된다(Edens, Marcus, Lilienfeld, & Poythress, 2006). 만약 사이코패스 성향과 관련된 중요한 임상적 행동들이 질적으로 구분되는 범주 내의 개인들, 즉 실제 사이코패스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라면 일반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이코패스 연구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연구자들 간 이견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차원적 연속성을 지닌다는 모델이 많은 연구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Edens et al., 2006; Larsson, Andershed, & Lichtenstein, 2006; Lynam & Miller, 2015; Miller & Lynam, 2003; Miller, Lynam, McCain, Few, Crego, Widiger, & Campbell, 2016; Patrick & Drislane, 2015). 이러한 입장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5요인 모델(five-factor model)과 같은 정상적 성격차원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사이코패스가 정상적 성격차원의 극단에 속하는 특성들의 집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구집단

혹은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많은 척도들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는 것은 이 같은 입장을 지지해주는 경험적 증거라고 볼 수 있다(Larsson et al., 2006). 예를 들어, 실제 사이코패스 집단과 일반인구집단에서 측정된 사이코패스 성향이 유사한 요인구조를 띤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두 집단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발현되며 측정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외에도 사이코패스 성향을 구성하는 정서적, 행동적 특성들이 범죄자 집단이나 임상집단을 벗어난 보다 넓은 범위의 일반인 집단에서도 나타나는 특성임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Coid, Freestone, & Ullrich, 2012; Lilienfeld, Watts, Francis Smith, Berg, & Latzman, 2015; Malterer, Lilienfeld, Neumann, & Newman, 2010). 이에 따라 Larsson 등(2006)은 일반인구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사이코패스 연구가 실제 사이코패스 집단의 특성을 밝히는데 정보적 가치를 지닌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대학생 표본으로부터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 즉 각 요인과 공감능력, 공격성 등의 변인들 간 상관 역시 실제 사이코패스 집단에 연속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공감능력에 대한 자기보고식 척도인 IRI의 타당도 문제를 결과해석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험에 가까운 형태의 두 가지 설문(얼굴표정 정서인식 과제, 정서적 시나리오 과제)을 사용하였으나, 측정치 변산이 제한됨에 따라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에서의 개인 간 편차를 정확히 반영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특히 정서적 공감에 대한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정서적 공감을 측정하는 IRI 하위

척도의 문항내용에 상당 부분 동정심의 요소가 혼입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예,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볼 때 자주 그를 염려하는 따뜻한 감정이 일어난다.”). 정서적 공감과 동정심은 모두 타인의 정서 표현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서로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다(Jolliffe & Farrington, 2006). 정서적 공감이 정서적 표현을 나타내는 개인과 이를 관찰하는 개인 간 정서적 일치(emotional congruence)가 일어나는 것이라면, 동정심은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의 심리적 안녕에 관심을 갖게 되는 마음상태로서 반드시 정서적 일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타인이 표현하는 고통에 대하여 슬픔을 느끼는 것은 표현되는 정서와 관찰자의 정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이때 관찰자의 정서반응은 동정심에는 해당하나 정서적 공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IRI를 비롯한 일부 자기보고식 공감 척도는 동정심과 정서적 공감을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인지적, 정서적 공감의 두 측면을 균형 있게 측정하는 척도는 아직 개발되지 못하였거나(Jolliffe & Farrington, 2006), 새로 개발된 척도가 있다 해도 충분한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Albiero et al., 2009). 따라서 IRI 측정치만으로는 정서적 공감과 두 요인 간 상관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얻기 어려우며, 정서적 공감의 활성화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정교한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기보고와 함께, 자기보고식 평정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리적 측정치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Meffert, Gazzola, den Boer, Bartels, & Keysers,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많은 경우 동정심이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인지적 공감)와 동일한 정서의 공유(정서적 공감)를 동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동정심이 사이코패스에서 나타나는 반사회적 행동의 억제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IRI 측정치 역시 일정한 함의를 지닌다.

공감능력에 대한 자기보고식 척도의 타당도 문제에 더하여, 사이코패스 성향 척도의 타당도 문제 역시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앞서 논의되었듯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성향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는 제한되어있으며, 이중 2요인 구조를 비롯하여 명확하고 간결한 요인구조를 확인한 연구는 더욱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저자의 척도 개발 연구(Levenson et al., 1995)에서와 마찬가지로 2요인 구조가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요인부하량을 기준으로 문항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총 26문항들 중 9문항을 분석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특히 요인 2의 경우 문항수가 반으로 축소되었으며 이것이 요인 2가 공감능력 및 공격성 측정치와 낮은 상관을 나타낸데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척도들을 국내표본에 적합하게 수정, 재구성하는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후속연구에서는 국내표본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안정적으로 검증된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 및 의의를 정리하고 후속연구를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국내표본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구성하는 두 하위 요인을 구분하고 각 요인과 관련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본 연구로서, 연구결과 사이코패스의 공감능력과 공격성을 설명하는데 정서적·

대인관계적 특성을 포함하는 요인 1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더불어, 공감능력과 공격성 간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공감능력의 부족이 특정 유형의 공격성, 즉 의도적,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도구적 공격성과 더 긴밀하게 연관될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사이코패스 성향과 공감능력,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결론을 보다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의 요인점수에서 폭넓은 변산을 나타낼 수 있는 집단(예, 수감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후속연구에서는 공감능력과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보고식 척도 외의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술적으로 정립된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의 개념을 정확하면서도 균형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 및 실험과제의 개발이 요청되며, 더불어 국내표본의 성격에 적합하게 사이코패스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지은, 김영운, 김범준 (2010). 정신병질 경향성집단에서의 정서인식: 시각적 Oddball 과제를 이용한 사건관련전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22(4), 451-475.
- 김범준, 이은진, 김영운 (2009). 대학생들의 정신병질에 대한 반사회성과 정서적 공감의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2), 219-239.
- 박성희 (1997). 공감과 친사회 행동. 서울: 문음사.
- 박혜영 (2007). 정신병질적 성격 질문지 개정판

- (PPI-R)의 타당도 연구. 경기대학교 일반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487-501.
- 양지은, 장문선, 소준현, 곽호완 (2011). 정신병질 성향군의 정서처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357-375.
- 오인수 (2010).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공감과 공격성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3(1), 45-63.
- 이석호, 이영호 (2014). 우울한 사람들의 공감 정확도와 스스로 보고한 공감능력: 대학생 을 대상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1), 17-33.
- 이수정, 공정식 (2007). 일반논문: 정신병질에 따른 국내 살인범들의 살인행위 특성분석. *한국경찰학회보*, 13(단일호), 203-225.
- 이수정, 김재경 (2011).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 (SRPS) 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2(1), 35-47.
- 이수정, 이동길, 위희정 (2015).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PCL-R 2, 3, 4 요인 모형 타당성 검증. *한국범죄학*, 9(2), 3-32.
- 전행자, 김영운 (2011). 고통판단과제에서 정신병질 경향성 집단의 고통공감: 사건관련 전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4), 121-137.
- 정운선, 김범준, 김영운 (2010). 정서 Go/NoGo 과제를 이용한 정신병질 경향성집단의 반응억제: 사건관련전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3), 17-36.
- Albiero, P., Matricardi, G., Speltri, D., & Toso, D. (2009). The assessment of empathy in adolescence: A contribution to the Italian validation of the "Basic Empathy Scale". *Journal of Adolescence*, 32(2), 393-408.
- Ali, F., & Chamorro-Premuzic, T. (2010). Investigating Theory of Mind deficits in nonclinical psychopathy and Machiavellia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3), 169-174.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 Washington, DC: Author.
- Anderson, J. L., Sellbom, M., Wygant, D. B., Salekin, R. T., & Krueger, R. F. (2014). Examining the associations between DSM-5 section III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traits and psychopathy in community and university sample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8(5), 675-697.
- Bagley, A. D., Abramowitz, C. S., & Kosson, D. S. (2009). Vocal affect recognition and psychopathy: Converging findings across traditional and cluster analytic approaches to assessing the construc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 388-398.
- Bailey, C. A., & Ostrov, J. M. (2008). Differentiating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in emerging adults: Associations with hostile attribution biases and normative belief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6), 713-722.
- Baron-Cohen, S. (1995). *Mindblindness: An essay on autism and theory of mind*. Cambridge,

- Massachusetts: MIT Press.
- Baron-Cohen, S., Wheelwright, S., Hill, J., Raste, Y., & Plumb, I. (2001). The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revised version: a study with normal adults, and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functioning autis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pplied Disciplines*, 42(2), 241-251.
- Batson, C. D., Fultz, J., & Schoenrade, P. A. (1987). Adults' emotional reactions to the distress of others.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163-18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nning, S. D., Patrick, C. J., Hicks, B. M., Blonigen, D. M., & Krueger, R. F. (2003). Factor structure of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 validity and implications for clinical assess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15(3), 340.
- Benning, S. D., Patrick, C. J., Salekin, R. T., & Leistico, A. M. R. (2005).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Psychopathy Factors Assessed Via Self-Report A Comparison of Three Instruments. *Assessment*, 12(3), 270-289.
- Blair, R. J. R. (1999). Responsiveness to distress cues in the child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1), 135-145.
- Blair, R. J. R. (2001). Neurocognitive models of aggression, the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s, and psychopathy. *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and Psychiatry*, 71, 727-731.
- Blair, R. J. R. (2005). Responding to the emotions of others: Dissociating forms of empathy through the study of typical and psychiatric population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4(4), 698-718.
- Blair, R. J. R. (2007). Empathic dysfunction in psychopathic individuals. In F. T. D. Farrow, & P. W. R. Woodruff (Eds), *Empathy in mental illness*, 3-1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air, R. J. R., Budhani, S., Colledge, E., & Scott, S. (2005). Deafness to fear in boys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3), 327-336.
- Blair, R. J. R., & Cipolotti, L. (2000). Impaired social response reversal: a case of 'acquired sociopathy'. *Brain*, 123, 1122-1141.
- Blair, R. J. R., & Coles, M. (2000). Expression recognition and behavioural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ognitive Development*, 15(4), 421-434.
- Blair, R. J. R., Colledge, E., Murray, L., & Mitchell, D. G. (2001). A selective impairment in the processing of sad and fearful expressions in children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6), 491-498.
- Blair, R. J. R., Jones, L., Clark, F., & Smith, M. (1997). The psychopathic individual: A lack of responsiveness to distress cues?. *Psychophysiology*, 34(2), 192-198.
- Blair, R. J. R., Mitchell, D. G. V., & Blair, K. (2005). *The psychopath: Emotion and the brain*. Hoboken, New Jersey: Blackwell Publishing.
- Blair, R. J. R., Mitchell, D. G. V., Colledge, E., Leonard, R. A., Shine, J. H., Murray, L. K., Perrett, D. I. (2004). Reduced sensitivity to

- other's fearful expressions in psychopathic individua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 1111-1121.
- Blair, R. J. R., Mitchell, D. G. V., Richell, R. A., Kelly, S., Leonard, A., Newman, C., & Scott, S. K. (2002). Turning a deaf ear to fear: impaired recognition of vocal affect in psychopathic individual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4), 682.
- Blair, R. J. R., Sellars, C., Strickland, I., Clark, F., Williams, A., Smith, M., & Jones, L. (1996). Theory of mind in the psychopath.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7(1), 15-25.
- Book, A. S., & Quinsey, V. L. (2004). Psychopaths: cheaters or warrior-hawk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1), 33-45.
- Book, A. S., Quinsey, V. L., & Langford, D. (2007). Psychopathy and the perception of affect and vulnerabilit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4), 531-544.
- Brook, M., & Kosson, D. S. (2013). Impaired cognitive empathy in criminal psychopathy: Evidence from a laboratory measure of empathic accura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2(1), 156-166.
- Brinkley, C. A., Diamond, P. M., Magaletta, P. R., & Heigel, C. P. (2008). Cross-validation of Levenson's Psychopathy Scale in a sample of federal female inmates. *Assessment*, 15(4), 464-482.
- Brinkley, C. A., Schmitt, W. A., Smith, S. S., & Newman, J. P. (2001). Construct validation of a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does Levenson's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measure the same constructs as Hare's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7), 1021-1038.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
- Cima, M., & Raine, A. (2009). Distinct characteristics of psychopathy relate to different subtypes of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8), 835-840.
- Cima, M., Tonnaer, F., & Lobbstaël, J. (2007). Moral Emotions in predatory and impulsive offenders using implicit measures. *Netherlands Journal of Psychology*, 63, 144-155.
- Cleckly, H. (1976). *The mask of sanity*. Maryland Heights, Missouri: CV Mosby.
- Coid, J. W., Freestone, M., & Ullrich, S. (2012). Subtypes of psychopathy in the British household population: findings from the national household survey of psychiatric morbidit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7(6), 879-891.
- Coynes, S. M., & Thomas, T. J. (2008). Psychopathy, aggression, and cheating behavior: A test of the cheater-hawk hypothe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1105-1115.
- Crego, C., & Widiger, T. A. (2015). Psychopathy and the DSM. *Journal of Personality*, 83, 665-677.
- Czar, K. A., Dahlen, E. R., Bullock, E. E., & Nicholson, B. C. (2011). Psychopathic personality traits in relational aggression among young adults. *Aggressive Behavior*, 37(2), 207-214.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el Gaizo, A. L., & Falkenbach, D. M. (2008). Primary and secondary psychopathic-traits and their relationship to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emo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3), 206-212.
- Dolan, M., & Fullam, R. (2004). Theory of mind and mentalizing ability in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s with and without psychopathy. *Psychological Medicine*, 34, 1093-1102.
- Dolan, M., & Fullam, R. (2006). Face affect recognition deficits in personality-disordered offenders: association with psychopathy. *Psychological Medicine*, 36(11), 1563-1569.
- Domes, G., Hollerbach, P., Vohs, K., Mokros, A., & Habermeyer, E (2013). Emotional empathy and psychopathy in offenders: an 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27(1), 67-84.
- Edens, J. F., Clark, J., Smith, S. T., Cox, J., & Kelley, S. E. (2013). Bold, smart, dangerous and evil: Perceived correlates of core psychopathic traits among jury panel members.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7, 143-153.
- Edens, J. F., Marcus, D. K., Lilienfeld, S. O., & Poythress Jr, N. G. (2006). Psychopathic, not psychopath: taxometric evidence for the dimensional structure of psychopath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5(1), 131.
- Falkenbach, D., Poythress, N., Falki, M., & Manchak, S. (2007).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wo self-report measures of psychopathy. *Assessment*, 14(4), 341-350.
- Few, L. R., Lynam, D. R., Maples, J. L., MacKillop, J., & Miller, J. D. (2015). Comparing the utility of DSM-5 Section II and III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diagnostic approaches for capturing psychopathic traits.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6(1), 64-74.
- Flight, J. I., & Forth, A. E. (2007). Instrumentally violent youths: The roles of psychopathic traits, empathy, and attachmen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6), 739-751.
- Forth, A. E., & Flight, J. I. (2007). Instrumentally violent youth: The roles of psychopathic traits, empathy, and attachmen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 Forth, A. E., Kosson, D. S., & Hare, R. D. (2003). *Have psychopathy checklist: Youth version*. Toronto: Multi-Health Systems.
- Frith, U. E., & Hill, E. E. (2003). *Autism: Mind and brai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Fullam, R., & Dolan, M. (2006). Emotional information processing in violent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ssociation with psychopathy and symptomatology. *Psychiatry Research*, 141(1), 29-37.
- Gao, Y., & Raine, A. (2010). Successful and unsuccessful psychopaths: A neurobiological model.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8(2), 194-210.
- Glass, S. J., & Newman, J. P. (2006). Recognition of facial affect in psychopathic offen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5(4), 815.
- Habel, U., Kühn, E., Salloum, J. B., Devos, H., & Schneider, F. (2002). Emotional processing

- in psychopathic personality. *Aggressive Behavior*, 28(5), 394-400.
- Hansen, A. L., Johnsen, B. H., Hart, S., Waage, L., & Thayer, J. F. (2008). Brief communication: Psychopathy and recognition of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2, 639-645.
- Hare, R. D. (1980). A research scale for the assessment of psychopathy in criminal popul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111-119.
- Hare, R. D. (1991).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Toronto: Multi-Health Systems, 23.
- Hare, R. D. (1999). *Without conscience: The disturbing world of the psychopaths among us*. New York: Guilford Press.
- Hare, R. D., Harpur, T. J., Hakstian, A. R., Forth, A. E., Hart, S. D., & Newman, J. P. (1990). The revised Psychopathy Checklist: reliability and factor structure.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3), 338.
- Hare, R. D., Hart, S. D., & Harpur, T. J. (1991). Psychopathy and the DSM - IV criteria for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391-398.
- Hart, S. D., Cox, D. N. & Hare, R. D. (1995).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 Screening Version (PCL-SV)*. Toronto: Multihealth Systems.
- Hart, S. D., & Hare, R. D. (1997). Psychopathy: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criminal conduct. In D. M. Stoff, J. Breiling, & J. D. Maser (Eds.), *Handbook of antisocial behavior* (pp. 22-35). New York, NY: Wiley.
- Hastings, M. E., Tangney, J. P., & Stuewig, J. (2008). Psychopathy and identification of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1474-1483.
- Hill, E. L., & Frith, U. (2003). Understanding autism: insights from mind and brai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B: Biological Sciences*, 358(1430), 281-289.
- Hubbard, J. A., Smithmyer, C. M., Ramsden, S. R., Parker, E. H., Flanagan, K. D., Dearing, K. F., Relyea, N., & Simons, R. F. (2002). Observational, physiological, and self-report measures of children's anger: Relations to reactive versus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73, 1101-1118.
- Igoumenou, A., Harmer, C. J., Yang, M., Coid, J. W., & Rogers, R. D. (2017). Faces and Facets: Variability of Emotion Recognition in Psychopathy Reflect its Affective and Antisocial Featur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6(8), 1066-1076.
- Jacobson, K. C., Prescott, C. A., & Kendler, K. S. (2002). Sex differences in the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4(02), 395-416.
- Jolliffe, D., & Farrington, D. P.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asic Empathy Scale. *Journal of Adolescence*, 29(4), 589-611.
- Jones, A. P., Happé, F. G., Gilbert, F., Burnett, S., & Viding, E. (2010). Feeling, caring, knowing: different types of empathy deficit in boys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and autism spectrum disorde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and Psychiatry*, 51(11), 1188-1197.
- Jutten, L. (2012). *Psychopathy and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s: Processing, Recognizing and Mimicking*. Tilburg University, Bachelor thesis.
- Keltner, D., Ellsworth, P. C., & Edwards, K. (1993). Beyond simple pessimism: effects of sadness and anger on social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5), 740.
- Kiehl, K. A., Smith, A. M., Hare, R. D., Mendrek, A., Forster, B. B., Brink, J., & Liddle, P. F. (2001). Limbic abnormalities in affective processing by criminal psychopaths as revealed by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Biological Psychiatry*, 50(9), 677-684.
- Kosson, D. S., Suchy, Y., Mayer, A. R., & Libby, J. (2002). Facial affect recognition in criminal psychopaths. *Emotion*, 2(4), 398-411.
- Larsen, R. J., & Ketelaar, T. (1991). Personality and susceptibility to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1), 132.
- Larsson, H., Andershed, H., & Lichtenstein, P. (2006). A genetic factor explains most of the variation in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5(2), 221.
- Levenson, M. R., Kiehl, K. A., & Fitzpatrick, C. M. (1995). Assessing psychopathic attributes in a noninstitutionalized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1), 151.
- Lilienfeld, S. O. (1994). Conceptual problems in the assessment of psychopathy. *Clinical Psychology Review*, 14, 17-38.
- Lilienfeld, S. O. (2004). Psychometric Properties of Self-Report Psychopathy Measure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y-Law Society, Scottsdale, AZ.
- Lilienfeld, S. O., & Andrews, B. P. (1996).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psychopathic personality traits in noncriminal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3), 488-524.
- Lilienfeld, S. O., & Fowler, K. A. (2006). The self-report assessment of psychopathy. In C. J. Patrick (Ed.), *Handbook of psychopathy* (pp. 107-132). New York: Guilford Press.
- Lilienfeld, S. O., Watts, A. L., Francis Smith, S., Berg, J. M., & Latzman, R. D. (2015). Psychopathy Deconstructed and Reconstructed: Identifying and Assembling the Personality Building Blocks of Cleckley's Chimera. *Journal of Personality*, 83(6), 593-610.
- Lilienfeld, S. O., & Widows, M. R. (2005). *Psychological assessment inventory-revised (PPI-R)*. Lutz,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Lynam, D. R., & Miller, J. D. (2015). Psychopathy from a Basic Trait Perspective: The Utility of a Five-Factor Mode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83(6), 611-626.
- Malancharuvil, J. M. (2012). Empathy Deficit in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 Psychodynamic Formul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72(3), 242-250.
- Malterer, M. B., Lilienfeld, S. O., Neumann, C. S., & Newman, J. P. (2010). Concurrent validity of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 with offender and community samples. *Assessment*, 17(1), 3-15.
- McHoskey, J. W., Worzel, W., & Szyarto, C. (1998).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4, 192-210.
- Meffert, H., Gazzola, V., den Boer, J. A., Bartels, A. A., & Keysers, C. (2013). Reduced spontaneous but relatively normal deliberate vicarious representations in psychopathy. *Brain*, 136(8), 2550-2562.
- Miller, J. D., & Lynam, D. R. (2003). Psychopathy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1(2), 168-178.
- Miller, J. D., & Lynam, D. R. (2006).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1469-1480.
- Miller, J. D., & Lynam, D. R. (2015). Psychopathy and Personality: Advances and Debates. *Journal of Personality*, 83(6), 585-592.
- Miller, J. D., Lynam, D. R., McCain, J. L., Few, L. R., Crego, C., Widiger, T. A., & Campbell, W. K. (2016). Thinking Structurally About Narcissism: An Examination of the Five-Factor Narcissism Inventory and Its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30(1), 1-18.
- Morales, J. R., & Crick, N. R. (1998).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Unpublished measure.
- Mullins-Nelson, J. L., Salekin, R. T., & Leistico, A. M. R. (2006). Psychopathy, empathy, and perspective-taking ability in a community sample: Im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psychopathy concept.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5(2), 133-149.
- Murray-Close, D., Ostrov, J. M., Nelson, D. A., Crick, N. R., & Coccaro, E. F. (2010). Proactive, reactive, and romantic relational aggression in adulthood: Measurement, predictive validity, gender differences, and association with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4(6), 393-404.
- Nisbett, R. E., & Wilson, T. D. (1977). The halo effect: Evidence for unconscious alteration of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4), 250.
- Ogloff, J. R. (2006). Psychopathy/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conundrum.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0, 519-528.
- Ogloff, J. R., Campbell, R. E., & Shepherd, S. M. (2016). Disentangling Psychopathy from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n Australian Analysis.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Practice*, 16(3), 198-215.
- Patrick, C. J., Bradley, M. M., & Lang, P. J. (1993). Emotion in the criminal psychopath: Startle reflex mod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82-82.
- Patrick, C. J. (1994). Emotion and psychopathy: Startling new insights. *Psychophysiology*, 31(4), 319-330.
- Patrick, C. J., & Drislane, L. E. (2015). Triarchic Model of Psychopathy: Origins, Operationalizations, and Observed Linkages with Personality and General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83(6), 627-643.
- Patrick, C. J., Venables, N. C., & Drislane, L. E. (2013). The role of fearless dominance in differentiating psychopathy from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Comment on Marcus,

- Fulton, and Edens.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4, 80-82.
- Pham, T. H., & Philippot, P. (2010). Decoding of facial expression of emotion in criminal psychopath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4, 445-459.
- Porter, S., Woodworth, M., Earle, J., Drugge, J., & Boer, D. (2003). Characteristics of sexual homicides committed by psychopathic and nonpsychopathic offenders. *Law and Human Behavior*, 27, 459-470.
- Poythress, N. G., Edens, J. F., & Lilienfeld, S. O. (1998).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 in a criminal popul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10, 426-430.
- Poythress, N. G., Lilienfeld, S. O., Skeem, J. L., Douglas, K. S., Edens, J. F., Epstein, M., & Patrick, C. J. (2010). Using the PCL-R to help estimate the validity of two self-report measures of psychopathy with offenders. *Assessment*, 17(2), 206-219.
- Preston, S. D., & De Waal, F. (2002). Empathy: Its ultimate and proximate bas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5(01), 1-20.
- Raine, A., Dodge, K., Loeber, R., Gatzke-Kopp, L., Lynam, D., Reynolds, C., Stouthamer-Loeber, M., & Liu, J. (2006). The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Differential correlate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adolescent boys. *Aggressive Behavior*, 32(2), 159-171.
- Reidy, D. E., Zeichner, A., Miller, J. D., & Martinez, M. A. (2007). Psychopathy and aggression: Examining the role of psychopathy factors in predicting laboratory aggression under hostile and instrumental conditio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 1244-1251.
- Richell, R. A., Mitchell, D. G., Newman, C., Leonard, A., Baron-Cohen, S., & Blair, R. J. (2003). Theory of mind and psychopathy: can psychopathic individuals read the 'language of the eyes'? *Neuropsychologia*, 41(5), 523-526.
- Rogers, K., Dziobek, I., Hassenstab, J., Wolf, O. T., & Convit, A. (2007). Who cares? Revisiting empathy in Asperger syndrome.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7(4), 709-715.
- Rogers, J., Viding, E., James Blair, R., Frith, U., & Happe, F. (2006).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psychopathy: Shared cognitive underpinnings or double hit?. *Psychological Medicine*, 36(12), 1789-1798.
- Sandoval, A., Hancock, D., Poythress, N. G., Edens, J. F., & Lilienfeld, S. O. (2000). Construct validity of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 in a correctional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4, 262-281.
- Schmeelk, K. M., Sylvers, P., & Lilienfeld, S. O. (2008). Trait correlates of relational aggression in a nonclinical sample: DSM-IV personality disorders and psychopath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2, 269-283.
- Shamay-Tsoory, S. G., Harari, H., Aharon-Peretz, J., & Levkovitz, Y. (2010). The role of the orbitofrontal cortex in affective theory of mind deficits in criminal offenders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Cortex*, 46(5), 668-677.
- Smith, A. (2006). Cognitive empathy and

- emotional empathy in human behavior and evolution. *Psychological Record*, 56(1).
- Smith, A. (2009). The empathy imbalance hypothesis of autism: a theoretical approach to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in autistic development. *Psychological Record*, 59(2).
- Sörman, K., Edens, J. F., Smith, S. T., Clark, J. W., Kristiansson, M., & Svensson, O. (2016). Boldness and its relation to psychopathic personality: Prototypicality analyses with forensic mental health, criminal justice, and layperson raters. *Law and Human Behavior*, 40, 337-349.
- Sprangers, M., Van den Brink, W., Van Heerden, J., & Hoogstraten, J. (1987). A constructive replication of White's alleged refutation of Nisbett and Wilson and of Bem: Limitations of verbal reports of internal eve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3(4), 302-310.
- Stanford, M. S., Greve, K. W., & Gerstle, J. E. (1997). Neuropsychological correlates of self-reported impulsive aggression in a college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 961-965.
- Stanford, M. S., Houston, R. J., Villemarette-Pittman, N. R., & Greve, K. W. (2003). Premeditated aggression: Clinical assessment and cognitive psychophysi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773-781.
- Stevens, D., Charman, T., & Blair, R. J. R. (2001). Recognition of emotion in facial expressions and vocal tones in children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2(2), 201-211.
- Strickland, C. M., Drislane, L. E., Lucy, M., Krueger, R. F., & Patrick, C. J. (2013). Characterizing Psychopathy Using DSM-5 Personality Traits. *Assessment*, 20(3), 327-338.
- Venables, N. C., Hall, J. R., & Patrick, C. J. (2014). Differentiating psychopathy from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 triarchic model perspective. *Psychological Medicine*, 44, 1005-1013.
- Verona, E., Patrick, C. J., Curtin, J. J., Bradley, M. M., & Lang, P. J. (2004). Psychopathy and physiological response to emotionally evocative sound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3(1), 99.
- Vitacco, M. J., Neumann, C. S., Caldwell, M. F., Leistico, A. M., & Van Rybroek, G. J. (2006). Testing factor models of the Psychopathy Checklist: Youth Version and their association with instrumental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7(1), 74-83.
- Vitaro, F., Barker, E. D., Boivin, M., Brendgen, M., & Tremblay, R. E. (2006). Do early difficult temperament and harsh parenting differentially predict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 685-695.
- Watts, A. L., Salekin, R. T., Harrison, N., Clark, A., Waldman, I. D., Vitacco, M. J., & Lilienfeld, S. O. (2016). Psychopathy: Relations with three conceptions of intelligence.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7(3), 269.
- Widiger, T. A., Livesley, W. J., & Clark, L. A. (2009). An integrative dimensional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disorder. *Psychological Assessment*, 21, 243-255.

- Widiger, T. A., Sirovatka, P. J., Regier, D. A., & Simonsen, E. (Eds.). (2007). *Dimensional models of personality disorders: Refining the research agenda for DSM-V*.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Publishing.
- Widom, C. S. (1976). Interpersonal and personal construct systems in psychopath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4), 614.
- Wilson, D. L., Frick, P. J., & Clements, C. B. (1999). Gender, somatization, and psychopathic traits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1*, 221-235.
- Woodworth, M., & Porter, S. (2002). In cold blood: characteristics of criminal homicides as a function of psychopath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3), 436.
- Zelenski, J. M., & Larsen, R. J. (2002). Predicting the future: How affect-related personality traits influence likelihood judgments of future ev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7), 1000-1010.
- 원고접수일 : 2017. 08. 29.
수정원고접수일 : 2017. 10. 31.
게재결정일 : 2017. 11. 01.

The Relationships among Psychopathy, Empathy, and Aggression

Jihoo Lee

Hoon-Jin Lee

Doyoun An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lack of empathy is often described as one of the core characteristics of psychopaths. However, prior studies on cognitive empathy in psychopaths have led to mixed conclusions. This study distinguishes the two factors that constitute the construct of psychopathy; Factor 1 (e.g., emotional callousness, lack of guilt) and Factor 2 (e.g., irresponsible lifestyle, poor behavioral contro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tial relationships among these two factors, empathy and aggression.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two online experiments (i.e., facial affect recognition task, emotional scenario task) were administered to 306 undergraduate students to collect data about psychopathy,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and aggression. Explan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the two-factor structure of psychopathy as expected.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both Factor 1 and Factor 2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self-reported measures of cognitive, affective empathy, and only Factor 1 emerged 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both kinds of empathy. Aggression also showed a stronger positive correlation with Factor 1 than with Factor 2, regardless of subtypes (i.e., instrumental, reactive,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short, empathy and aggression were better predicted by Factor 1 than by Factor 2.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factors of psychopathy, empathy, aggression

표 22. 공감능력과 공격성 간 상관 (N=30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IRI 인지적 공감																
2. IRI 정서적 공감	.373**															
3. 정서인식 정확도(행복)	.009	.081														
4. 정서인식 정확도(슬픔)	.001	.004	.413**													
5. 정서인식 정확도(공포)	.100	.111	.444**	.381**												
6. 정서인식 정확도(고통)	.060	.113*	.391**	.289**	.263**											
7. 정서인식 정확도(중립)	.014	-.063	.255**	.219**	.119*	.170**										
8. 정서적 공감(행복)	.137*	.218**	.143*	.086	.040	.101	.085									
9. 정서적 공감(슬픔)	.133*	.294**	.203**	.195**	.157**	.197**	.087	.618**								
10. 정서적 공감(공포)	.086	.175**	.238**	.195**	.112	.167**	.066	.608**	.689**							
11. 정서적 공감(고통)	.124*	.208**	.155**	.190**	.151**	.184**	.074	.632**	.640**	.670**						
12. 도구적 공격성	-.293**	-.188**	-.121*	-.221**	-.162**	-.189**	-.207**	-.167**	-.224**	-.135*	-.168**					
13. 반응적 공격성	-.301**	-.069	-.018	-.078	-.022	-.100	-.118*	-.172**	-.110	-.059	-.080	.559**				
14. 관계적 공격성	-.395**	-.277**	-.066	-.207**	-.086	-.127*	-.180**	-.121*	-.178**	-.101	-.088	.518**	.477**			
15. 신체적 공격성	-.240**	-.164**	-.058	-.144*	-.027	-.226**	-.175**	-.150**	-.093	-.113*	-.129*	.520**	.551**	.417**		
16. 언어적 공격성	-.196**	-.105	-.050	-.119*	-.082	-.190**	-.128*	-.066	-.033	-.008	.003	.257**	.322**	.383**	.432**	

* $p < .05$. ** $p < .01$.